3주차 세종대왕과 그의 시대 – '세종대왕' 관련 역사소설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초상화의 변천
2차시	한글과 여성
3차시	세종대왕 관련 역사소설
4차시	이정명의 《뿌리깊은 나무》
5차시	세종대왕의 창의적 리더십
6차시	미디어 속 '세종대왕'

1차시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초상화의 변천

학습 목표

- 서울 도심의 광화문 광장에 어째서 세종대왕의 동상이 서 있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현재 한국의 문자인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2007년 한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을 묻는 설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잡지사에서 실시한 것인데요. 여기서 세종대왕은 28.2%로 24.6% 이순신에 앞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로 늘 1, 2위를 다투지만 이순신보다 세종대왕이 1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글 창제를 비롯해 문화적으로 찬란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이란 누구이고 선조 임금처럼 보통 임금이나 왕으로 부르지 않고 아주 큰 임금이라고 하는 대왕, 이런 존칭을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두 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앞에는 조선 시대의 뛰어난 무사, 지금으로 치면 해군 사령관인 이순신이, 뒤에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세종대왕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어 문자인 한글을 만든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학생과 선생님이 주고받고 있는데요. 어린이는 선생님께 "세종대왕의 왼쪽 손에 펼쳐진 책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훈민정음해례본〉은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 사용법 등을 적은 책이라고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글과 훈민정음, 이건 다른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의 동상을 보시면 꼭 왼쪽 손과 책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이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은 〈훈민정음해례본〉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와 소리 등을 설명해 놓은, 말하자면 해설서, "훈민정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이란 말은 참 낯섭니다. 우리 한글은 알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둘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처음 한글, 이 소리 문자를 만들면서 이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하는 이

한자 뜻을 살려 훈민정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대신 한글로 이름이 바뀌게 된 때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인 1927년입니다. 그 전인 1926년에는 그림에서 보듯 최초의 한글날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한글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가갸날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의 이름은 처음에는 훈민정음, 그러고 나서 가갸날 잔치라고 했고, 그다음에 1927년, 한글이 된 것입니다. 현재는 다들 한글이라고 말하지 훈민정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와 원리를 적은 이 〈훈민정음해례본〉 또는 〈훈민정음〉이라고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사이에 이 책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책은 더 이상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1940년에 발견되어 한글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글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학자들에게도 너무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글이 정확히 언제 제정되었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되는데도 이 책의 발견이 중요하게 기여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유네스코에는 문맹 퇴치,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없애는 이런 데 기여한 사람에게 King Sejong Prize라고 해서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문자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랐던 세종대왕의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지폐를 보시게 되면 세종대왕이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세종대왕을 지폐 도안으로 사용하는 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종대왕의 정확한 실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1973년 한국 돈으로 만 원권 지폐에 그려진 세종대왕의 모습인데요. 한글을 만든 임금답게 아주 나이가 있는 좀 근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옆에는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 원권 지폐에 그려진 세종대왕의 모습은 앞의 모습과 좀 다르죠. 1973년 만 원권 지폐에 그려졌을 때 얼굴 모습과 인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세종대왕이 이전보다 더 젊어졌다고 농담을 섞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옆에 그려져 있었던 무궁화(無窮花)도 사라졌습니다. 세종대왕의 기념관에 있는 영정, 즉 초상화도 걸려 있는데요. 그런데 또 만 원권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과 차이가 납니다.

"세종대왕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그때 통

치를 하던 재위 기간에 초상화를 그린 기록은 있지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전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초상화가 불타 없어져서 세종대왕의 실물을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록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그리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초상화가 없다 보니까 얼굴과 표정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을 그럼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세종대왕 기념관에 있는 영정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의 동상의 모습인데요. 너무너무 친근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서 세종대왕도 아주 이렇게 친근한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예로 제가 들어 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은 1397년에 태어났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큰아들 중심의, 그러니까 장자 승계의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세종대왕은 워낙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서 세 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는 1443년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했지만 그 외에 그가 젊은 학자들에게 명령해서 새롭게 발명한 기구나 기계도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이라면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한 생활에 유용한 물건들을 아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천의(渾天儀)라든지 측우기(測雨器), 자격루(自擊漏)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지폐, 현재 만 원권 지폐의 뒷면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혼천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양을 본떠 별의 움직임 등을 재현한 천문 관측기구입니다. 시간을 측정하고 천문학 수업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자동으로 하늘의 움직임을 알려 주고 있지만 당시는 그런 정교한 장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뛰어난 천문학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천문학에도 관심을 두고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던, 정말로 과학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활용한 혼천 시계인데요. 세종대왕이 발명한 혼천의를 이용한 혼천 시계입니다. 추를 이용해서 시간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간과 하늘의 움직임을 동시에 볼 수 있게 제작한 아주 합리적이고 쓸모 있는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조선 시대에 만든 천문 시계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물, 바로 국보 제230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도 유일하게 남은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바로 자격루, 물시계인데요. 중국 원(元)나라 순제(順帝) 왕 때 저절로 시각을 알리는 물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교함이 장영실(蔣英實,15C)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명령을 해서 만든 사람의 이름이 장영실인데요. 장영실의 정밀함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후로도 계속 전해질 물건이라고 하는, 공식 기록에 설명이 있을 정도로 자격루, 즉 물시계는 정교하고 정확했습니다. 두 시간마다 종과 북을 치는 현재의 디지털시계의 원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자격루는 대단히 뛰어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격루가, 영상을 재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격루의 정교함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문제로 제가 참고 문헌으로 이 자격루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를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제시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꼭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 주는 측우기입니다. 측우기는 비의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세종 때 처음 만들어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빗물이 고이게 해서 그 빗물의 깊이를 재어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를 측정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그리고 밑에는 측우대가 있는데요. 이는 측우기를 일정한 높이로 올려놓기 위해서 받치던 돌, 바로 돌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시면 밑에 그 돌이 있는데요. 이것은 왜 해 놨느냐? 바닥에서 튄 빗물이 들어가면 정확히 비의 양을 셀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측우대를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의 양을 얼마나 엄격하게 측정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표준 측정 기구로써 전국에 측우기가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은 국민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참고문헌】

- 〈조선의 디지털 시계 자격루〉 문화유산채널http://www.k-heritage.tv/brd/board/378/L/CATEGORY/643/menu/1418?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643&bbIdx=12042&brdType=R&migEtc=progDetail&migEtc2=850&migEtc3=818&tab=
- 한영우, 《세종평전》, 경세원, 2019
- 광화문광장 아카이브, https://gwanghwamun.seoul.go.kr/mcms/upload/encoding/image/2021/06/MIG_PT_PH_00000543001.jpg〉
- 국립고궁박물관https://www.gogung.go.kr/imgView/imgFileDown.do?cultureSeq=235LJE&imgSeq=9&seq=REQ_0000000000227357〉
- 문하재청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unisearch/images/national_treasure/2279648.jpg〉
-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한 자랑스런 문화유산, 혼천시계(渾天時計), 고대뉴스, 2010.07.22〉
- 유은숙, [카드뉴스] 10월 9일 한글날, 세종대왕의 진짜 얼굴은?,아주경제, 2019.10.08〉
- 한국 기록유산 Encyves,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EC%84%B8%EC%A2%85%EB%8C%80%EC%99%95_%ED%91%9C%EC%A4%80%EC%98%81%EC%A0%95〉
- 서울시 50플러스포털,https://www.50plus.or.kr/upload/im/2018/01/ea3ab8ea-3b74-445e-8bf5-4a2696bbdfeb.jpg〉
- 서울시 50플러스포털,https://www.50plus.or.kr/upload/im/2018/01/950cb11a-99f7-422c-9c2d-2de33fe4d2c5.jpg〉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unisearch/images/national_treasure/1611468.jpg〉
- 서울사랑https://love.seoul.go.kr/asp/articleView.asp?intSeq=4918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data/img/eh/eh_r0230/eh_r0230_i01.jpg〉
- 김명국, '영웅 중의 영웅' 세종대왕, 시사저널, 2007.10.22〉

2차시 한글과 여성

학습 목표

-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인 한글 창제를 둘러싼 당대의 갈등과 투쟁을 설명할 수 있다.
- 상층 남성의 문자인 한자에 비해 한글은 여성의 문자로 여겨지며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문자에서 소외된 민중과 여성은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후대에까지 전달할 수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443년 12월 30일, 이 날짜는 뭘까요?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갑작스럽게 공표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소식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처럼 단 세 줄로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친히 자신이 한글을 창제했고 이를 가리켜 훈민정음이라고 한다는 짧은 문장에 담긴 한국 문자의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글 창제를 알리는 한문 포고를 한글로 풀어쓴 내용입니다. 세종대왕이 친히 언문, 한글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언문(諺文)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즉, 한글 28자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글자가 옛날 문자를 모방했다고는 하지만 초성과 중성, 종성을 나누고 이를 합하여 문자를 만든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세종대왕의 독창적 사고이기 때문에 대단히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상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로 인해서 후대의 사람들, 지금 현대 사람들도 "한글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여전히 이 비밀을 파헤치고자 하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세종대왕께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이 미스터리를 둘러싼 수많은 서사는 계속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뜻하는 훈민정음 해설서인 〈훈민정음〉을 한글로 옮긴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언해본이란 한문으로 된 훈민정음 해설서를 한글, 훈민정음으로 번역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썼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다른데 문자는 한자를 쓰고 있으니 말하는 것과 글로 하는 것의 어긋남이 심하다. 양반이야 한자를 배워 뜻을 펼치면 되지만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글로 표현할 수 없어 손해 보는 일이 많다. 대표적으로 법률에 무지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서 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더 가중한 처

벌을 받는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한글 창제의 의도는 이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글은 24자가 기본 문자를 이룹니다. 자음 14자, 모음 10자입니다. 합하면 24자입니다. 이 기본 문자를 바탕으로 된소리, 'ㄱ'을 'ㄲ'으로 변환하는 응용 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보셨을 것인데요. 이 시간은 문자에 관한 학습은 아니라서 "지금은 24자가 기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법률에도 손해 보지 않게 만들었던 훈민정음은 원래는 28자였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4자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4자가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리듯이 이런 4자입니다. 지금은 이 4자를 쓰고 있지 않아서 저도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에서나 문자는 끊임없이 변하고 생성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아, 반치음, 옛이응, 여린히읗, 이런 것들이 "지금은 현대 한국인들도 못 쓰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다른 영어권에 있든지 다른 어떤 문자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한글도 변해 왔구나."라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의 학자들은 이 네 글자를 살려서 지금까지 썼다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번역할 때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다양하게 발음할 수 있었으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미 사라진 네 글자를 지금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이런 얘기는 그냥 호사가들의 이야기 정도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한글 창제를 처음 알린 몇 달 뒤, 1444년 2월 20일에 집현전(集賢殿)의 학사 서열로 보자면 두 번째로 높은 최만리(崔萬理,?-1445)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는 한글에 반대합니다."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이를 갑자 상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상소(上疏)라는 것은 조선 시대 관리들이 왕이 펼치는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주로 쓰는 수단이었습니다.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금님의 정책에 반대나 아니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최만리는 왜 이렇게 한글에 반대했을까요? 몸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공표를 했는데 최만리가 세종대왕의 이 큰 업적에 왜 반대를 했을까요? 최만리는 한글이 야비하고 상스럽고 무익하다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한문은 만렙, 그리고 최고의 레벨이라면 한글은 쪼렙, 낮은 레벨의 문자라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만렙, 쪼렙, 이런 말을 잘 쓰는데요. "이로움이 하나도 없으니 거듭 생각해도 한글을 창제할 이유가 없다.", "백성은 일하기도 바쁜데 뭔 글자를 배우게 하냐?", "글은 지배 계층인 양반만 쓰면 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한글 반포를 반대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이 이렇게 한글 반포에 반대를 하자 그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 땅의 소리에 맞는 문자 체계가 필요하다. 어리석은 민중에게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문자를 보급하면 최소한의 유교 윤리와 권리를 지킬 힘이 생긴다. 누구나 문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리와 통하는 쉬운 문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관리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많아지면 아무것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수많은 모든 백성들, 모든 민중들이 쓸 수 있는 소리와 통하는 문자를 발견을 했고, 발명을 했고,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깨우치겠다는 세종대왕의 목적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 창제를 바로 세종대왕을 앞에 두고 반대했던 관리들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한글 창제라는 중대한 사건을 통해 한글은 서서히 확산되었습니다. 지배층 남성들은 한문을 계속 썼지만 여성들과 일반 민중들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자신들에게 맞게 적응해 가며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한글 반절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글 반절표는 한글을 배우는 초보 교재입니다. 서당이나 일반 가정에서 한글을 배울 때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이게 20세기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자가 ‘가’, 가-나-다, ㄱ-ㄴ-ㄷ, 이렇게 한글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위에는 ‘가’라는 글자를 살린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ㄱ’, ‘가’에다가 모음을 붙인 개가 그려져 있고, ‘나’에는 ‘나’를 살린 나비, ‘다’에는 ‘다’를 살린 닭,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한글을 익히면서 지루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라고 글자에 맞는 동물들을 그려 놓은 아주 초보적인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의 것들,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이 편지는 어머니 안 씨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입니다. 죽은 남편의 묘소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키는 아들을 걱정해서 어머니가 손수 쓴 편지인데요. 바로 이것이 한글입니다.

16세기, 매우 이른 시기의 한글 편지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작성 시기도 정확하고 발신자와 수신자도 분명해서 한글 편지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인데 적어도 16세기의 여성들은 한글로 편지를 썼고 문자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이 편지체를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874년 조선 최고의 한글 명필가인 궁녀(宮女) 이씨(李氏)가 쓴 문체입니다. 우리가 궁녀라고 하는 건 궁궐의 시녀들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궁중에서는 왕비나 공주 등을 대신해서 이렇게 예쁜 글씨체로 대신 써 주는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궁에서 쓰는 문체라고 해서 궁체 혹은 궁서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궁녀들은 엄격히 선별하여 철저하게 교육시켰고, 이렇게 발전된 궁체는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예의 바른 품위를 보여 준 문체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시각미를 자랑하고요. 이렇게 곡선화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궁서체는 흘리듯이 썼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궁중의 여성들에 의해서 발전되었구나.", 지금이라고 하면 특허권을 신청했어도 됐을 정도로 잘 발전된 문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775년 이덕무(李德懋,1741-1793)라는 사람은 이렇게 한바탕 걱정을 늘어놓습니다.여자들이 한글 소설에 빠져들어서 집안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모두 질투와 음란한 것이라 여자들에게 나쁜 물이 드니 이를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걱정을 한 것이죠. 당시 남성 지배층이 한글을 보고 한글 소설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여성들은 한글로 쓰인 소설의 주 소비자 층이었다는 것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소설이 어떻게 그럼 유통이 되었는가?"라고 보면 세책가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세책점은 지금의 말대로라면 책 대여점인데요. 요즘처럼 인쇄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개인들이 소장하는 책이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본을 그대로 베끼는 전문 필사자, 그대로 그냥 베껴서 이걸 파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글씨 못 쓴 것을 흉보지 말아 달라고 하는 필사자의 부탁도 써 놓기도 하고요. 그러면 독자들도 이 빌린 책에다가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는데 사진에서 보이듯이 "책 대여료 너무 비싸다.", 이런 불평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끊다니 나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댓글 문화, 이 댓글 문화가 바로 이 빌린 책에 쓰여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이런 책을 빌려서 이 한글 소설을 즐기다 보니 여성들 중에는 책을 빌려보느라고 집안 재산을 다 날려 버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실제인지 아니면 과장이 섞인 것인지는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림은 윤덕희(尹德熙,1685-1776)의 '책 읽는 여인'인데요. 독서 삼매경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독서에 아주 깊이 빠져든 모습이라고 해도 좋을 성싶습니다. 1700년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근대 이전의 조선 시대 여성들은 집안일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여유가 많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틈틈이 여성들도 독서를 즐겼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듯 여성들은 아주 가정일에 바빴고 가문을 챙기고 남성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은 일을 해야 했었지만 이렇게 여성들도 틈틈이 독서하고, 그리고 책을 쓰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만 조선 시대 여성들이 창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설사

한글 소설을 지었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자기 이름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랐던 그 최대 수혜자는 바로 여성이었고, 그 여성들에 의해서 궁체, 이런 책들, 한글 소설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

-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김진아 외 옮김, 《한글의 탄생》, 돌베개, 2011
- 〈훈민정음과 여성의 삶〉, 국립한글박물관https://www.youtube.com/watch?v=Mt_Q8yJ5ib0
- e뮤지엄, https://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500300100219000003
- 국립한글박물관, https://www.hangeul.go.kr/webzine/202105/img/sub/sub2_2_img5.png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admin2011/upload/photo/2019/01/16/5B635FB6-59DC-4759-989F-E383D304DC46_THUMB_3.jpg
- 디지털 장서각, https://url.kr/af7mnu
- 국립한글박물관, https://www.hangeul.go.kr/images/user/img/img_display_0306.png〉
- 문화유산채널, https://url.kr/4y6vam
-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 〈서문(序文)〉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data4/jpg/12_07450100_00/0001/import/12_07450100_00_0001_0006.jpg
- 한영우, 《세종평전》, 경세원, 2019, 621-622면
- 국사편찬위원회, https://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jsessionid=6695DEC1F3C8BCF483114E0AF8741D74?id=kda_12512030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3차시 세종대왕 관련 역사소설

학습 목표

- 세종대왕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을 해석할 수 있다.
- 한글 창제를 둘러싼 음모와 추리를 가미한 역사소설이 많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세종대왕 관련 역사 소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소설은 바로 이름 그대로 〈세종대왕〉입니다. 1969년 3월 1일부터 1977년 2월 11일까지 2,456회까지 연재된 소설입니다. 신문 연재 사상 최장기 연재소설이고요. 작가는 인간 세종대왕의 참모습을 그리고자 한다고 이 소설을 쓰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간이면서 초인간적인 지도력으로 32년 만에 커다란 업적을 쌓았다고 이 소설은 극찬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면에서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은 업적을 쌓은 세종대왕의 모습을 그린 이 소설은 세종대왕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적 상황이 너무 길게 서술되어 있어서 독자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세종대왕이 실제 쓰인 부분은 못 읽었다는 후문도 있을 정도로 긴 소설입니다. 그래서 9년간 신문 연재를 마무리 짓고요. 박종화는 바로 이 10권의 단행본으로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1997년 12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발간한 책 제목도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나오는 부분은 11권부터이기 때문에 혹시 읽고 싶은 학생들 중에 "나는 세종대왕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11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시작, 이런 식으로 한글에 대한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세종대왕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책은 11권, 12권을 중심으로 해서 〈King Sejong〉이라고 해서 뉴욕 라치우드 출판사에서 영문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 한 명인 안정효(安正孝,1941-)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나온 책인데요. 목차를 살펴보면 한국어 단행본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효는 베트남 전쟁을 다룬 〈하얀 전쟁〉이라는 소설로도 유명한 한국의 소설가입니다.

이 소설책도 자신이 직접 영어로 번역해 미국에서 출판했던 작가-번역가인데요. 그리고 이 책을 지금 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구할 수 있다면 이 세종대왕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책은 1997년 이찬우가 쓴 〈소

설 훈민정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박종화(朴鍾和,1901-1981)의 소설과 달리 훈민정음을 표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관례대로라면 첫째가 왕위를 이어야 했지만 셋째 아들인 세종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 소설은 세종대왕을 도왔던 훌륭한 인재들 이야기도 중요한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제 과정,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냥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따라 만들어진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명(李正明,1965-)의 〈뿌리 깊은 나무〉, 2006년 작입니다. 사진 1, 2의 선전 문구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 차이가 나는데요. 초판본에는 "한글 속에 숨겨둔 '대왕 세종'의 비밀코드!", 이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드라마로 제작되어 인기를 끌면서 표지가 바뀝니다. "명품 드라마 원작!", 이렇게 앞세워서 "누가 왕의 학사들을 죽였나?"가 책 표지를 장식합니다. 살인 사건과 범죄 추리를 더 부각하는 광고 문구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광고 문구만으로 "이 책이 뭔가 미스터리한, 그리고 추리가 들어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책이겠구나, 소설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충분히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인기가 있었던 것이고 드라마가 되면서 더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제가 세종대왕과 관련된 역사 소설로 대표작으로 추천 드리는 책입니다. 김재희(1973-)의 이 소설 또한 한글 창제의 비밀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살인 사건의 범죄와 추리가 소설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이 소설도 한글 창제의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한글은 어느 날 갑자기 세종대왕이 친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이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한글의 원류를 가림토 문자로 보는데요.

이 가림토 문자라는 건 조선 시대 이전 이전 이전, 고대부터 존재했던 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이 읽을 수 없는 일본 신대 문자도 한글과 비슷한 문자 모양을 취하고 있어서요. 이런 상상력으로 훈민정음이 가림토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일부의 생각을 바로 소설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좀 읽으면 "어? 이렇게 고대로까지? 훈민정음의 원류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다은의 〈훈민정음의 비밀〉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로 다음 왕위에 오른 문종왕은 불운하게도 아내를 두 번이나 폐해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혼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이 소설의 부제이기도 한 세자빈(世子嬪) 봉씨(奉氏)입니다. 훈민정음의 보급을 막으려는 거대한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궁궐에서 쫓겨난 세자빈 봉씨의 이야기가 나란히 전개됩니다. 이 세자빈 봉씨는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바로 동성애자였기 때

문입니다. 세자빈 자체가 동성애자였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동성애 모임에 참여도 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세자빈이 쫓겨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바로 훈민정음의, 한글의 창제, 이것과 더불어서 세자빈 봉씨가 어떻게 쫓겨나게 됐는지, 이 행적을 따라 소설화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흥미를 자극합니다. 다음으로 한소진(韓沼震,1960-)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종대왕이 혼자 진짜 한글을 만들었단 말인가?",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혼자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자녀들이 도왔고요. 특히 세종대왕의 딸인 정의공주(貞懿公主,1415-1477)가 아버지를 도와 한글의 소리 체계를 완성했다는 여성 중심의 역사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자녀가 많아서 8남 2녀가 있었는데요. 바로 둘째 딸이 정의공주였습니다. 이 정의공주는 아주 똑똑했다고 하고요. 이 정의공주가 아버지가 막힌 부분을 막혀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도와서 한글 창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 딸의 역할, 여성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한소진의 〈정의공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북한의 역사 소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춘명(朴春明,1933-)의 〈훈민정음〉입니다. 2001년 북한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6년에 북한의 판권을 가져와서 출판되었는데요. 훈민정음이 고대부터 있었던 토착어에 기반해 만들어졌다고, 아까 가림토 문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설정인데요. 하지만 이 소설은 민중들이 자신의 소리에 맞게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북한은 민중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중 중심의 사관이 철저합니다. 바로 이 소설도 그렇게 민중에 의한 문자가 이미 있었고, 그것이 한글화되었다고 보고 있는 소설입니다.

잠시 이 박춘명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높이 자랑할 수 있는 우수한 우리나라의 문자는 슬기로운 인민대중의 재능과 창조적 노력이 있어서 15세기에 완성되었다." 라고 이렇게 했고, 북한은 세종대왕을 한국에서처럼 영웅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왕은 봉건 지배층의 이념을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2001년 세종대왕을 과학 문명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이례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이때 박춘명의 〈훈민정음〉이 발표되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참고문헌】

- Park Chongwha, trans. AhnJunghyo, King Sejong, New York: Larchwood, 1977
- 김다은,《훈민정음의 비밀》, 생각의 나무, 2008
- 박춘명,「작가의 말」,《훈민정음》, 금성청년종합출판사, 2001, 3면
- 강의자 촬영 국회도서관 소장
- 알라딘, https://image.aladin.co.kr/product/68/85/cover500/8958642327_1.jpg
- [뉴스 속의 한국사]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누가 도왔을까요?,조선멤버스, 2018.10.10.
- https://image.aladin.co.kr/product/1113/35/cover500/8965743052_1.jpg
- 알라딘, https://image.aladin.co.kr/product/262/3/cover500/8984988936_1.jpg
- 알라딘, https://image.aladin.co.kr/product/66/81/cover500/8959868698_1.jpg
- 일본 천조대신은 단군조선 추장 출신, 이세신궁원시한글문헌기록,참한역사신문, 2020.08.30.
- 알라딘, https://image.aladin.co.kr/product/2072/58/cover500/8991643159_1.jpg
- yes24, http://image.yes24.com/momo/TopCate04/MidCate02/318100.jpg
- https://www.buchfreund.de/de/d/p/90609040/king-sejong-a-novel#&gid=1&pid=1
- 〈조선일보, 1969.03.0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6903010023910202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9-03-01&officeId=00023&pageNo=2&printNo=14730&publishType=00010

4차시 이정명의 《뿌리깊은 나무》

학습 목표

- 대표작으로 이정명의 《뿌리깊은 나무》를 분석할 수 있다.
- 한글, 즉 훈민정음을 둘러싼 음모는 옛것과 새것의 대결을 깔고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둘러싼 역사 소설 가운데 이정명의 〈뿌리 깊은 나무〉를 대표작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2006년에 발간된 작품인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작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붙인 제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후 한글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최초로 지은 왕조, 그러니까 왕의 내력을 지은 서사시에서 한 구절을 따와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한글로 지어진 최초의 왕조 서사시의 제목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입니다.

〈용비어천가〉의 제1장과 2장을 슬라이드에 제시했는데요. 1장은 해동(海東)의 여섯 용, 즉 조선 시대 세종 이전의 여섯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2장은 그 왕조의 뿌리가 깊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꽃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일반 백성도 편안하고 풍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 제2장의 뿌리 깊은 나무를 차용해서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SBS에서 같은 이름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편 24부작이고요. 스페셜 3부작으로 총 27부작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는 아주 인기가 있어서 최고 시청률이 20%가 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이렇게 책도 덩달아 같이 팔리게 되는데요. 바로 소설-드라마-소설책의 선순환 관계를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자체도 아주 잘 만든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잠시 트레일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일러 영상을 보시면 백성들도 이미 한글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민중들 사이에 뿌리내린 한글의 전파력,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소설보다 더 극화된 감동 코드를 살렸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아무리 남성 지배 계층이 탄압한다고 해도 백성들 사이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했다고 하는 걸 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드라마 작가의 말을 잠시 따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못지않게 중요하게 〈뿌리 깊은 나무〉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점이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슬라이드, 〈뿌리 깊은 나무〉의 책 표지와 〈다빈치 코드〉의 책 표지를 나란히 놓았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를 소개하는 신문의 한 구절이 눈에 띕니다. "한국의 〈다빈치 코드〉라 할 만하다. 연쇄 살인을 추적하는 짜릿한 스릴과 절묘한 트릭은 물론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궁궐 배치의 정치적 코드와 한글 창제의 원리가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이 책을 소개했는데요. 한국의 〈다빈치 코드〉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다른 소개도 볼까요? "한글 창제를 다룬 역사 미스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뭔가 미스터리한 설정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다빈치 코드〉와 유사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출간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만큼 유명하지 않아서 그 인기를 실감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아직 읽지 않았다면 저는 〈다빈치 코드〉는 읽어 봐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추천 드립니다.

마리아 막달레나(Maria Magdalena)라는 비천한 존재를 통해서 위대한 신의 일을 실천했던 예수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데 이 소설은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배 전설이 나오고요.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존재가 나오고, 그리고 이 존재를 추적하는 내용으로 대중들의 호기심을 정말로 자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아내라는 설정이 있어서요, 로마 가톨릭교회가 〈다빈치 코드〉의 유포, 판매를 반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논란이 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작가 댄 브라운은 "이 모든 것은 허구가 아니야. 사실이야."라고 얘기해서 더 논란을 불러일으킨, 차라리 허구라고 얘기했으면 가톨릭교회에서 그렇게 더 반대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장미의 이름〉의 저자 에코도 댄 브라운을 얼간이라고 칭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비슷할까요? 보시면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이 작품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죽어 나가는 사람을 왜 죽어 나갔는지를 찾는 탐정형 인물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탐정형 인물이 주인공 채윤입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그의 지위는 대단히 낮았지만 투철한 사명감으로 끝까지 살인 사건을 감추려는 범죄 집단에 맞서 진실을 알아내려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윤은

한글 창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소이라는 궁녀, 그러니까 여성이 한 명, 그런데 대단히 비밀스럽고 뭔가 신비한 여성이 등장을 하고 심지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궁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글 창제와 관련된 미스터리는 점점 더 증폭이 되면서 소설의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이런 스토리 전개를 보여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 결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빈치 코드〉와 〈뿌리 깊은 나무〉의 공통점인데요. 비밀 결사 조직에서 유럽의 비밀 단체인 '시온'이라고 하는 단체를 〈다빈치 코드〉에서 댄 브라운은 쓰고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댄 브라운은 주장을 했습니다. 1975년 비밀문서로 알려진 양피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아이작 뉴턴에서 위고까지 이런 시온 수도회의 회원들의 이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댄 브라운은 "이 시온이라는 단체는 비밀 결사 단체로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비밀 종교의식 등도 거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댄 브라운은 허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의 비밀 결사 단체가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작약 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밀 결사 단체의 활동이 있고, 그 비밀 결사 단체의 회원을 죽이려고 하는 범죄 집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책이 전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에는 단서가 제시가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의 단서는 바로 한글입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단서를 제공해서 이 기호를 조합해서 문장을 완성해야지만 진실에 다가갈 길이 열린다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반대로 숫자로 이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어쨌든 이 숫자든 문자든 수수께끼 같은 암호를 푸는 일이 바로 탐정형 역할을 맡은 주인공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계속 방해가 되죠. 왜냐하면 책이 재미있으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극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계속 이것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의 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은 어느 날 한글을 창제했다고 발표를 했고 세종대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들도 몰랐던 일이라 "이게 뭔 일?"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를 둘러싼 비밀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역사 소설에서는 공백의 지점, 다크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것들을 바로 상상력, 인간의 상상력이 들어갈 수 있는, 개입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뿌리 깊은 나무〉는 범죄, 추리, 그다음에 수수께끼, 미스터리, 이런 것들을 다 잘 버무려서 한글 창제의 사건을 좀 더 극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가 정통이라는 어떤 관념이 있고 이단이라고 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정말로 정해져서 완전히 고정된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정통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오늘날 정통이 아니듯이 이단이라고 불렀던 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정통이 될 수도 있는 바로 이런 경계에 대해서 〈뿌리 깊은 나무〉는 좀 더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배 계층인 남성 사대부들은 한글을, 그리고 한글 지식을 "아, 그거 쓸데없는 지식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쓰인 지식 역시 굉장히 비천하고 낮게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자체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종대왕은 본디 다른 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그 소리에 맞는 문자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로 이렇게 남성 사대부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지식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요. 바로 이런 도전 정신의, 뭐라고 할까요? 결산, 이런 산물이 바로 한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그것은 바로 거대한 시대와 맞서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바로 그래서 옛것과 새것의 싸움이라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강대국의 문자와 지식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중들이, 우리 백성들이 쓰는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문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작가의 주제 의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사고를 보여 주는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잠시 살펴볼까요? 사진을 잠시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책인데요. 원래 〈시학〉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1부, 비극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부는 희극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남아 있는 건 비극밖에 없기 때문에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1932-2016)는 희극이 있다고 하는 소설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장미의 이름〉을 썼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크 에어리어, 즉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을 상상력을 발휘한 것인데요. 14세기, 수도원에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원인은 수도원장이 금서로 지정한 이 희극론을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독이 묻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다 죽게 되는 이런 설정으로 바로 이런 미스터리를 풀어 가는 소설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글 소설을 뭔가 한글의 비밀을 풀어 가는 것과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서 뭔가 이 희극이 어떻게 금서가 됐는지 이런 것과, 또 그리고 〈다빈치 코드〉와 뭔가 이 소설의 세 가지의 유사점, 형식의 비슷함, 그러면서도 뭔가 역사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 비밀을, 이 어두운 부분을 파헤치려고 하는 작가의 상상력, 이 세 가지, 이 작품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까요? 이번 수업은 바로 이 어두운 부분의 소설적 상상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문헌】

- 이정명, 《뿌리깊은 나무》, 은행나무, 2015
- 댄 브라운(Dan Brown), 안종설옮김, 《다빈치코드》, 문학수첩, 2013
- 움베르트에코(Umberto Eco), 이윤기 옮김, 《장미의 이름》, 열린책들, 2009
- An introduction to Oedipus and Antigone Ancient Greek Theatre, https://player.slideplayer.com/33/8239268/data/images/img4.jpg
- 이정명, 《뿌리 깊은 나무》, 밀리언하우스, 2006, 269-774면
- 댄 브라운 , 《다빈치코드》, 대교베텔스만, 2004
- 알라딘, https://image.aladin.co.kr/product/6600/0/cover500/8956609268_1.jpg
- 알라딘, https://image.aladin.co.kr/product/3432/85/cover500/8983925000_1.jpg
- SBS, https://img2.sbs.co.kr/img/sbs_cms/SR/2018/02/01/SR53811620_w1280_h720.jpg
- SBS, https://img2.sbs.co.kr/img/sbs_cms/WE/2018/04/19/WE59242971_ori.jpg
-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9A%A9%EB%B9%84%EC%96%B4%EC%B2%9C%EA%B0%80, 공임순보완
-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0725857

5차시 세종대왕의 창의적 리더십

학습 목표

-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한글 창제 리더십은 디지털시대 창의적 발상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유명한 임금으로, 그리고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수준을 높인 임금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종대왕에게 배우고 싶은 장점 1위는 한글 창제 등 지식 창조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 조사를 해 봤더니 지식 창조 경영 41.7%, 아마도 이것은 세종대왕이 독자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업적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위주의 인재 경영 전략이 38.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고려 시대가 끝나고 조선 시대가 건국된 초기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해야 했던 때입니다. 그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나라의 안정을 위해 힘을 쏟았는데요. 이 정신을 21세기의 지식 창조 경영으로 이어가자고 하는 이런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설문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이러한 업적은 다른 지역과 문화의 지도자와 비교하는 연구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우구스투스와 세종의 비교라든지 중국의 강희제(康熙帝)와 세종을 비교한다든지 링컨과 세종대왕의 비교 리더십이 학회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초대 황제로서 '팍스 로마나'로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평가받고요. 또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히고 동맹국을 보호하고 조세 제도를 개선했던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비교 근거가 있다면 세종대왕도 그런 업적을 남겼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스티브 잡스랑도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능한 관료와 직원은 필요 없다. 유능해야 된다.", 두 번째로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무조건 매일 출근한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세 번째로 "실용적 지식을 중시해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그래서 토론의 시간을 자주

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꽁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은 필요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종대왕과 뭔가 스티브 잡스부터 아우구스투스부터, 이렇게 비교 근거가 많다면 세종대왕은 분명히 그와 연관된 어떤 업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대왕은 총명하고 학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자의 원칙, 그러니까 첫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원칙을 파괴할 만큼 세종대왕은 학구적이었다고 하는 공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마침내 여기에서의 임금의 역할을 다하고 돌아가셨을 때 해동, 아시아의 요순(堯舜), 이상적인 왕이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왕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는 사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일만을 전담했기 때문에 왕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 이거 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관이 쓴 글을 보면 세종대왕은 해동, 당시 아시아를 부르는 이름인데요. 해동의 요순, 요순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아주 이상적인 왕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동의 요순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직후에 세종대왕은 이미 뛰어난 왕으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은 도대체 왜 해동의 요순으로 불렸을까요?

첫 번째로 발상의 전환,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라. 지금도 여성들은 출산, 육아 부담이 너무 큰데요. 조선 시대, 여성들을 그렇게 비하했던 조선 시대에도 덕에 바탕한 통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급과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가진 훌륭한, 그렇게 했을 때만 훌륭한 통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종대왕이 몸소 보여 줬는데요. 노비, 노비라는 것은 여러분, 조선 시대의 엄격한 신분제 제도에서는 노비는 뭐라고 할까요? 물건처럼 사고팔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비에게 100일 동안 출산 휴가를 주라고 했다니 지금도 저는 진짜 놀라울 뿐입니다, 이 부분 너무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모든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사람은 충분히 자기 몸을 돌볼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 줬던 훌륭한 리더십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발상의 전환은 세제 개혁을 위해서 지금도 하기 힘든 일반인 18만 명에게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뭔가 이 제도를 고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나 민중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실시하면 분명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세금 문제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너무 큰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 개혁을 할 때 세종대왕은 18만 명의 사람들에게 여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너 이거 어때?", "이렇게 실시했을 때 좋을까?", "세제 개혁을 할까, 말

까?", 이렇게 18만 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금은 온라인이나 인터넷이 발달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발로 뛰는 여론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요, 찬성이 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도 42.9%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았다면 세종대왕은 바로 그 정책을 실시를 했을 텐데 이게 약간 높다 보니까 세종대왕은 그렇다면 이를 잠시 보류를 하고 세제 개혁에 찬성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실시를,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먼저 실시를 한 다음에 무려 14년에 걸쳐서 세제 개혁법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 정신은 정말 굉장히 본받을 만한데 지금은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금의 왕에 해당되는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고 이렇게 계속 선거로 바뀌기 때문에, 예전 조선 시대는 한 왕이 몇십 년을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종대왕의 당시 합의 절차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상의 전환,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 중 지금도 계승해야 할 것은 인재 등용 원칙입니다. 집안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너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식으로 여전히 개인의 능력보다 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종대왕은 이러한 편견 없이 인재를 골고루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할까? 당시에는 인재로 쓰지 않는, 당시 사대부들이 전부 다 반대했던 인물들도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무당의 자식이라든지 노비의 자식, 이런 경우도 재주와 역량이 있다면 관직을 주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집현전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 이게 당시의 집현전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현전은 통치에 필요한 학자와 연구자들을 육성하고 생산해 내는 지금의 국가 연구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에 임명이 되면 다른 관직으로 옮기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일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그 안에서만 승진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국가 소속 연구원인 셈인 것이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구하기 힘든 도서를 중국에서도 사 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주고 인쇄도 해 주고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하는 모든 환경과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금의 연구년, 그런 것들을 주어서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서 독서를 반년이나 일 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은 이러한 학문의 역량을 키워서 나중에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국가의 관료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21세기 집현전의 정신, 그리고 학구열, 그리고 이런 국민이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신을 살린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바로 안목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 열린 리더십, 이렇게 네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문헌】

- 〈세종 조선을 업그레이드하다〉, KBS역사스페셜https://www.youtube.com/watch?v=DMBJTPYSorU•손주현, 이재정 그림, 《여기는 집현전》, 책과함께, 2022
- 세제개혁 추진하던 세종 “백성 18만 명에 물어봐라”, 중앙일보, 2008.03.25.
- 세종대왕박물관, http://sejongkorea.org/user/saveDir/board/www12/29_1516772977_0.jpg
- 4차산업위, 디지털집현전2024년 서비스 목표,헤럴드경제, 2020.12.23.
- 엘리트 뽑아 체계적 훈련.. ‘용인술의 대가‘ 세종과 잡스, 매일경제, 2018.03.23.
- Wikip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b/Statue-Augustus.jpg/320px-Statue-Augustus.jpg
- Wikim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f/Young_Kangxi.jpg
- Wikip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b/Abraham_Lincoln_O-77_matte_collodion_print.jpg/368px-Abraham_Lincoln_O-77_matte_collodion_print.jpg
- 한국 기록유산 Encyves,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EC%84%B8%EC%A2%85%EB%8C%80%EC%99%95_%ED%91%9C%EC%A4%80%EC%98%81%EC%A0%95

6차시 미디어 속 '세종대왕'

학습 목표

- 드라마와 영화 속 세종대왕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세종대왕 사후 아들의 왕위 계승 다툼에 대한 두 편의 역사소설을 해석할 수 있다.

소설 속에 나타난 세종대왕 못지않게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세종대왕은 재현되었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1978년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한 영화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죠. 1964년에 세종대왕에 관한 최초의 한국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포스터는 78년 제작된 영화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개혁적이었는가?"라고 하는 모습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큰 제작비가 투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교육적이어서 재미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교육은 좋은데, 그리고 우리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드라마 속에서 세종대왕은 근엄한 모습으로 재현되긴 했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데는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총 86부작의 대하드라마 〈대왕 세종〉이 만들어집니다. 야심 찬 기획으로 출발한 드라마였는데요, 시청률은 생각보다 부진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뛰어난 업적이 허구와 상상의 개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 뛰어나다 보니 여기에 벗어나서 뭔가 다른 여지를 주기가 쉽지 않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세종대왕을 나쁘게 그리면 세종대왕은 너무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 시청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을 걱정해서 너무 바른 인물로만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도 앞의 영화처럼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단 한 명의 백성도 그에게는 하늘이고 땅이고 우주였다고 하는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영화 〈신기전(神機箭)〉입니다. 이 〈신기전〉은 최초로 세종대왕이 만든 장거리 로켓 포탄을 가지고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요. 여기는 허구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습니다. 위대했던 업적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 왜 기록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허구와 상상력을 개입해서 만든 이야기이고요. 세종대왕 못지않게 이 로켓 포탄을 만들기 위해

서 애썼던, 노력했던 많은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트레일러 영상을 잠시 보실까요?

여기서 이 영화, 이 트레일러를 보시면 "이름 없는 민중들이 바로 이 로켓포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이외에도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비롯해서 한글 창제를 다룬 영화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둘러싼 미스터리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로 인기가 있는 건 세종대왕의 사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바로 왕좌의 게임이 벌어집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은 장자, 즉 첫째 아들 우선이었는데요. 그런데 세종대왕도 바로 너무 능력이 특출해서 결국 첫째 아들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는데 세종대왕의 첫 번째 아들은 문종(文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종 외에 세종은 또 다른 아들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래서 문종이 왕위에 오르면 자연히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왕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계승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37세에 문종이 죽습니다. 그러면 문종의 장자인 단종(端宗), 그러니까 문종의 첫째 아들인 단종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단종이 너무 나이가 어렸다는 것입니다. 나이 12살 때 일입니다. 12살에 왕위에 오른 단종은 결국은 세종의 두 번째 아들, 여기 옆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세종의 두 번째 아들이 세조(世祖)입니다.

이 세조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세종대왕을 도와서 한글을 창제하는 데 도움을 줬던 많은 신하들, 집현전 학사들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을 편들다가 세조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집현전 학사들을 사육신, 그래서 죽음으로써 왕에게, 그 이전 왕에, 단종에게 충성, 그리고 아니면 세종, 문종에게 충성했던 신하라고 해서 사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종-문종-단종-세조로 이어지는 이 피로 얼룩진 왕좌의 게임, 이것이 바로 역사 소설의 소재가 됩니다. 역사 소설로 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죠, 사실은. 그래서 세종대왕은 나라를 훌륭히 다스렸지만 그가 죽고 난 후 왕좌의 게임이 벌어집니다.

세조는 어린 조카인 단종을 왕위에서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사약을 내린, 사약이라고 하는 건 약간 지금의 독약인데요. 독약을 내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조의 왕위를 찬탈한 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 어린 조카의 허약한 지위를 노려 자신이 왕이 된 바로 권력욕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 "어린 왕이 다스리기에는 너무 불안한,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불안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수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역사 소설가인 이광수는 단종의 편에서

세조의 왕위의 찬탈을 비판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29년 작입니다.

그리고 이광수의 〈단종애사〉에 맞서는 김동인(金東仁,1900-1951)의 〈대수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양(首陽)'이라고 하는 건 세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수양〉이라는 작품을 썼고요. 이것을 이렇게 서로 맞서는 시각에서, 정반대의 시각에서 이 두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인은 단종을 옹호한 이광수에 맞서 세조를 옹호했던 것이죠. 세조의 편에서 이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각이, 상반된 시각을 보여 주는 두 단행본 사진 슬라이드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는 〈단종애사〉라고 한다면 하나는 〈수양대군〉이죠. 그래서 이 〈단종애사〉는 발표 당시 독자들에게 사실은 큰 사랑을 받았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시각을 보여 줬던 김동인의 작품은 사실은 크게 이만큼의 인기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소설로 두 작품이 만들어진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화도 이렇게 두 가지 시각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있습니다.

세조 왕위 찬탈 사건을 소재로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바로 왼쪽 편의 〈단종애사〉와 〈관상〉입니다. 〈관상〉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관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굴의 모습을 보고 왕이 될 것인지 배신자가 될 것인지 등등을 알려 주는 일종의 점성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상은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바로 얼굴에 나타난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일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그다음에 삶의 모습이 얼굴에도 나타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한동안 여러분이, 한국의 앱에는 셀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왕, 장사꾼, 양반, 천민, 이렇게 분류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려 주는 게 있는데요. 저도 여러 번 찍어 봤는데 한 번은 왕이 되었다가 한 번은 장사꾼이 되었다가 한 번은 천민이 되었다가, 이렇게 찍을 때마다 약간 달라서 "역시 이것은 맞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 앱이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세조는 자신이 왕이 될 상이라는 것을 관상가에게 억지로 왕이 될 상을, 그 얘기를 받아 내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당신은 왕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기 이 〈관상〉에서는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진 왕이라고 하는 세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으로 만들어 낸 왕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2013년 작 〈관상〉도 여러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폐하고 자신이 왕이 됐구나."라고 하는 이 이후의 왕좌의 게임의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문헌】

- 이광수, 김종욱 감수,《단종애사》, 태학사, 2019
- 공임순,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의 형상화 방식은 다르다〉,《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0
- 국립민속발물관,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leaflet-for-film-the-tragedy-of-king-dan-jong-unknown/kAGja27X0trUAw?hl=ko
- 네이버영화, https://movie-phinf.pstatic.net/20130819_110/1376895907326wlXma_JPEG/movie_image.jpg
- 옛날물건, https://www.yetnal.co.kr/data/item/1339132599/1047.jpg
- 강의자촬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namu.wiki, https://namu.wiki/w/%EA%B9%80%EB%8F%99%EC%9D%B8
- 동아일보, 1928.11.3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811300020920602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8-11-30&officeId=00020&pageNo=6&printNo=2971&publishType=00020〉
- 다음영화, http://t1.daumcdn.net/cfile/146EBD10B12A0E84D8
- Wikipedia,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ko/4/40/%EB%8C%80%EC%99%95_%EC%84%B8%EC%A2%85_%ED%8F%AC%EC%8A%A4%ED%84%B0.jpg
- 다음영화, http://t1.daumcdn.net/cfile/113B674C4FEA276529

Lecture

1차시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초상화의 변천

In 2007, a magazine conducted a survey to determine the most esteemed individual in Korea. The results revealed that King Sejong received the highest percentage of votes at 28.2%, followed by Yi Sun-sin with 24.6%. King Sejong and Yi Sun-shin are often considered the most revered figures in Korea and frequently compete for the top two spots. However, King Sejong's cultural contributions, including the creation of Han'gŭl, likely contributed to his first-place ranking.

It is worth exploring who King Sejong is and how he earned the title of "Great King" rather than simply being referred to as a king, like King Sŏnjo. In Kwanghwamun Square, there are two statues on display. One at the front is of Yi Sun-sin, an admiral of the Chosŏn Dynasty, while the other one behind is of King Sejong, as depicted in the accompanying image. King Sejong is widely recognized for creating the Korean alphabet, Han'gŭl. A student and a teacher are talking about this statue in this picture. "What is the book that King Sejong is holding in his left hand?" The child inquires of the teacher. Then, the teacher answers, it is "Haerye Part" of 〈Hunmin chŏngŭm〉. The teacher goes on to explain that it is a text that explains the reasons for the creation and usage of "hunmin chŏngŭm". Then, how is Han'gŭl different from "hunmin chŏngŭm"? From now one, let's examine the distinction between Han'gŭl and "hunmin chŏngŭm". Please take a close look at the statue of King Sejong, especially his left hand and the book he is holding.

In this statue, King Sejong holds a book in his left hand, which is "Haerye Part" of 〈Hunmin chŏngŭm〉. It provides insight into the reasons for the creation of "hunmin chŏngŭm" and instructions on its usage. It explains the principles and sounds of "hunmin chŏngŭm", and in essence, how it is

composed. The word “hunmin chŏngŭm” could be relatively unfamiliar, despite the widespread knowledge of Han’gŭl. This is because King Sejong named the script “hunmin chŏngŭm” when it was first created. The term was chosen for its meaning, "the right sound to teach the people."

However, the name was changed to Han’gŭl in 1927, after Korea became a colony of Japan. Prior to this, in 1926, the first Han’gŭl Day ceremony was held. Yet, the term Han’gŭl is not used at that time, and the ceremony was called “Kagya nal Festival”. So, the name Han’gŭl was first referred to as “hunmin chŏngŭm”, then as “Kagya nal Festival”, before finally becoming Han’gŭl in 1927. So, today, everyone calls the Korean script as Han’gŭl not “hunmin chŏngŭm”.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hunmin chŏngŭm” is an older name for Han’gŭl. This book, “Haerye Part” of 〈Hunmin chŏngŭm〉 or often called just 〈Hunmin chŏngŭm〉 describes the reasons and principles behind the creation of “hunmin chŏngŭm”.

The book explains why King Sejong created “hunmin chŏngŭm”. It was known that this book existed but it went missing for a time. When people almost doubted about the existence of this book, it was eventually discovered in 1940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Han’gŭl research. The book was also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1997, highlighting its importance not only for Han’gŭl scholars but for scholars worldwide. Through this book, we can also determine the exact date of the establishment of Han’gŭl, which contributes to the significance of October 9th as Han’gŭl Day.

Currently, UNESCO awards the King Sejong Prize to individuals wh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radication of illiteracy and the elimination of those unable to read. This award was established to commemorate King Sejong's desire for all individuals to have access to written text. King Sejong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beloved historical figures in Korea and his image is prominently featured on the country's currency. There was no objection to using King Sejong as a design for currency bills in Korea.

However, the issue arises when attempting to depict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King Sejong, as there is no known exact depiction of his

appearance. The image of King Sejong on the 10,000 won bill from 1973 portrays him as an older, serious individual, as the creator of Han'gŭl and includes the national flower of Korea, "Mugunghwa", on the side. However, this depiction is a bit different from King Sejong's portrait in today's 10,000 won bill. The facial features and impression are a bit different to the depiction on the 10,000 won bill in 1973, which has led to jokes that King Sejong appears younger on the later bill. Additionally, "Mugunghwa" also disappeared in the current bill. King Sejong's portraits hung in the memorial hall of King Sejong also differ in appearance from the image on the 10,000 won bill.

You might think, "Why does King Sejong look so different?" This is due to the lack of reliable historical records and authentic portraits of King Sejong, as many were destroyed during the Imjin War. Although various portraits of King Sejong have been painted, based on historical records and expert opinions, their representation of his face and expression may differ due to the lack of authentic, original portraits. However, one may consider the portrait in the King Sejong Memorial Hall as a standard representation. The statue of King Sejong in Yŏju is depicted as a friendly figure, which aligns with the historical context of King Sejong's image evolving over time. This is quite an interesting example.

King Sejong was born in 1397 and, despite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succession to the eldest son during the Chosŏn Dynasty, due to his exceptional learning and talent, he inherited the throne as the third son. He invented "hunmin chŏngŭm", or Han'gŭl, in 1443, but he also ordered the invention of many other instruments and machines by young scholars. These inventions have greatly impacted and improved daily life through the use of advanced technology.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honch'ŏnŭi (armillary sphere)," "ch'ŭgugi (gauge to measure rainfall)", and "chagyŏngnu (self-striking water clock)." Let's talk about those more in detail while seeing some paintings.

There is this painting on the back of the current 10,000 won bill, or the bill with the King Sejong's portrait. You might wonder what it is, but this is "honch'ŏnŭi (armillary sphere)," astronomical observation device used to

measure time and teach astronomy, It is very different from the sophisticated means of automatically tracking the movements of the stars we have today. Nevertheless, the "honch'ŏnŭi" was a sophisticated device for its time. You can think of King Sejong as someone who possessed a truly scientific mind, who was interested in astronomy and sough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movements of the heavens.

This is "honch'ŏn clock,"which used the "honch'ŏnŭi" to measure time using weights. This clock was a reasonable and useful device that allowed one to see the movement of time and the sky simultaneously. It is the only remaining astronomical clock among those made during the Chosŏn Dynasty, so I explained this. This i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No. 230.

And this is "chagyŏngnu (self-striking water clock)." It is said that during the era of Toghon Temür in Yuan Dynasty, there was a automatic water clock. "Chagyŏngnu" was invented by Chang Yŏng-sil, a notable inventor of the time, in the record it said that Chang Yŏng-sil's water clock is further superior to the Yuan one, to that extent, it was a sophisticated and accurate device. The water clock is also considered a prototype for the current digital clock, striking a bell and drum every two hours. This is considered an achievement in technology. So, I would like to display a video to demonstrate the intricacy of this device, however, due to copyright concerns, I have provided a reference for understanding its functionality.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refer to it.

Lastly, King Sejong's contributions also include "ch'ŭgugi", the rain gauge, an instrument used to measure the amount of rainfall. The rain gauge was first made during his reign and distributed nationwide. The rain gauge was carefully designed to accurately measure the amount of rain And there is "ch'ŭgudea" at the bottom of it. This stone served as a support to elevate the rain gauge to a specific height. As can be seen in the image, there is a stone located beneath the gauge. The purpose of this is to prevent rainwater from the ground from entering and affecting the accuracy of the measurement. This illustrates the level of precision with which King Sejong sought to measure the amount of rainfall. This rain gauge was distributed throughout the country as a national standard measuring instrument. King

Sejong's interest in the well-being of his people is evident in his efforts to improve people's daily lives.

2차시 한글과 여성

December 30, 1443, what could have happened on that date? It marks the date of the sudden announcement of King Sejong's creation of Han'gŭl. Contained in just three lines, like the underlined part, King Sejong announced that he personally created Han'gŭl that changed the history of Korean letters, called "hunmin chŏngŭm" Shall we take a closer look? This is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written proclamation in Chinese characters that informed the creation of Han'gŭl. This alphabet King Sejong personally made was given many names, one of which was "ŏnmun." It notes that in total, it has 28 Korean characters.

Although the letters were based on older ones, the idea of dividing initial, middle, and final letter and combining them to make syllables was a very innovative idea at the time, as it was entirely King Sejong's original idea. The mystery surrounding how he came up with this idea continues to stimulate imagination, as people still question how Han'gŭl was made. Without the ability to ask King Sejong directly using a time machine, numerous narratives surrounding this mystery will continue to be speculated.

The "Ŏnhae" edition of 〈Hunmin chŏngŭm〉 is a Korean translation of 〈Hunmin chŏngŭm〉, a commentary on the correct sound that teaches the people. The "Ŏnhae" edition translated the explanation of 〈Hunmin chŏngŭm〉 in Chinese characters into Korean so that anyone can read and understand it. The contents are as follows: "Since the phonological system of Korean is different from that of Chinese, the Chinese characters that describe both Chinese and Korean cannot be used in communication. The traditional elite, known as Yangban, were able to learn Chinese characters and express their desires, but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who were illiterate, were often disadvantaged and unable to express themselves in writing. This led to issues such as ignorance of the law and harsher punishments for crimes committed without knowledge. The intention behind the creation of Han'gŭl was rooted in

a desire to serve the needs of the people.

Today, the basic character set of Han'gŭl consists of 24 characters, including 14 consonants and 10 vowels. The sound based on this basic character, the application of converting 'ㄱ' to the tensed 'ㄲ', will be made. Everyone who is interested in Han'gŭl has probably seen it at least once. This course is not about learning letters, so you can just think, "24 characters are basic right now." However, the "hunmin chŏngŭm", which King Sejong created to benefit the people widely and prevent them from being unfairly subject to the law, originally consisted of 28 characters. It consisted of 17 consonants and 11 vowels. This means there were four additional characters.

Those four characters on this slide are not in use currently. It may be difficult to pronounce them as they are not currently in use. In any era or culture, letters are constantly changing, producing, or disappearing. Therefore, these four letters, "arae a (ㆍ)" "semi-dental sound (ㅿ)", "old iŭg (ㆁ)", "yŏrin hiŭt (ㆆ)" may be considered as Korean letters have been changed like any other letters have. However, some scholars argue that if these four letters had been used, it would have been possible to pronounce them more abundantly, accurately, and diversely when translating other languages. However, since these four letters have already disappeared, it is not possible to reverse the process, so it is best to move on to other stories.

On February 20, 1444, a few months after the invention of Han'gŭl was first announced, a scholar named Ch'oe Man-ri, who held the second-highest academic rank of Hall for Men of Wisdom, made an appeal against the use of Han'gŭl, which is also called "kapcha appeal." In the Chosŏn Dynasty, an appeal was a means by officials could criticize a king's policy if they deemed it unfair. Submitting an appeal to the king means that one opposes the king's policy, or is requesting a revision.

Why was Ch'oe Man-ri against Han'gŭl, even though King Sejong personally made and announced it? Why did he oppose King Sejong's great achievement? He criticized it for being vulgar, mean, and useless. He argued that Chinese characters were at a higher level of complexity and usefulness. In today's terms, if Classical Chinese is max level, the highest level, then Han'gŭl is a

newbie, a low-level script. Young people today use these kinds of words often. He argued that there was no benefit to inventing Han'gŭl, as people were already busy working and common people were already busy working, and letters were only meant for the ruling class and aristocrats.

In response to these criticisms, King Sejong defended the use of Han'gŭl and its distribution among the people. "I have devised a writing system that reflects the sounds of our language. It is necessary for a writing system that is suited to the sounds of this land. The dissemination of letters that can be written as they sound to the common people will empower them to uphold basic Confucian ethics and rights. There should be an easily readable script that corresponds to the sounds so that anyone can access it," he said, silencing dissenting officials. Therefore, King Sejong believed that having more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 the eyes could prevent unjust harm caused by ignorance, so he devised, developed, and invented a writing system that could be used by all people, and that was Han'gŭl.

However, the purpose of King Sejong's aim to enlighten everyone was not achieved overnight. As you read, there was high-rank official's strong opposition. Despite opposition from officials, the dissemination of Han'gŭl gradually spread through a significant event known as the creation of Han'gŭl. While men in the ruling class continued to write in Chinese characters, women and common people began to adopt and develop the Han'gŭl script created by King Sejong to suit their needs.

An example of this can be seen in the "Half Korean Table," shown in the slide here. This was a beginner's textbook for learning Han'gŭl and was widely used in village schools and households until the 20th century. The letters marked red at the top are the Han'gŭl letters, begins with 가, 가-나-다, ㄱ-ㄴ-ㄷ. On top of 가, an image of a dog utilizing the syllable 가 is depicted.

A dog (개) with a vowel attached to 가 is illustrated, while the syllable 나 is presented with an image of a butterfly (나비). Similarly, 다 is depicted with an image of a chicken (닭) to make learning the letters less tedious and easier to remember. This is a basic textbook that utilized a simple yet effective method for teaching Hangeul. And what you see on this slide is a letter from Mrs.

An, a mother, to her son. It is a cultural heritage of Korea, expressing the mother's worries for her son, who was mourning and looking after his father's funeral ritual at his father's grave. It is a letter written by the mother herself, written in Han'gŭl,

dating back to the early 16th century. It is a valuable resource for the study of Korean letters, as it is accurate in its date of writing, and the sender and receiver are clearly identified. It is a valuable record that shows that women, at least in the 16th century, wrote letters in Korean and were literate. The font seen on this slide is very beautiful. This style was written in 1874 by court lady Yi, who was the best Han'gŭl calligrapher of the Chosŏn Dynasty. The term court lady refers to women waiting on the king and other royalty in the palace and there were some court ladies who wrote in such beautiful handwriting on behalf of the queen or princess.

This style is called "Kungch'e" or "Kungsŏch'e" because it was a style used in the palace. These court ladies were strictly selected and thoroughly educated, and this developed court calligraphy style became a style that conveyed soft, elegant and polite dignity, boasting outstanding visual beauty. It curves in such a way as to give a soft feeling, you might think of it as if it was written in a flowing style and developed by women in the palace. Now you can think of it as a well-developed style that would have been good enough to have applied for a patent.

Then, in 1775, a man named Yi Tŏk-mu expressed concern that women were becoming too engrossed in reading Han'gŭl novels and neglecting their household responsibilities. He believed that the novels were filled with jealousy and obscenity. This concern reveals that at the time, the male ruling class viewed Han'gŭl novels with suspicion. However, it can be inferred that women were the primary consumers of novels written in Han'gŭl.

In order to access these novels, people would have to visit a place called "Sech'aekka", which was a book rental store. At the time, printing technology was not as advanced as it is today, so it was not possible for individuals to own a book. Instead, professional scribes would copy the original work and sell it. As seen in the image on the slide, some scribes even apologized for

their poor handwriting. Additionally, readers would leave comments on the borrowed books. Comments such as "book rental is too expensive" or "it's bad to hang up like this" can be seen in this commentary culture.

It is said that some women even lost their entire family fortune in order to borrow books,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is is a factual account or if it is a mixture of exaggeration. The picture is Yun Tŏk-hŭi's "The Woman Who Reads a Book," which depicts a woman deeply immersed in reading. It is believed to be from the 1700s. During the pre-modern Chosŏn Dynasty, it is known that women did not have much leisure time as they were responsible for housework, but they still found time to enjoy reading.

As seen in the painting, women were busy with their family affairs and responsibilities that men did not do, and they still found time to read in their spare moments, some women even wrote books. However, during the Chosŏn Dynasty, there was a lot of criticism of women's writing, so they often did not release their names. What I want to convey is that King Sejong did not want any of his people to suffer from unfairness. The biggest beneficiaries of this new writing system were women, who were able to access more knowledge and information. It is clear that the style of “Kungch’e”, these books, and Han’gŭl novels were developed by women. I hope you will remember this, and I will conclude this session.

3차시 세종대왕 관련 역사소설

What are some historical novels that pertain to King Sejong? The first historical novel about King Sejong I'd like to introduce is 〈King Sejong the Great〉, as the title suggests. It was serialized in a newspaper from March 1, 1969 to February 11, 1977 and is considered the longest serial novel in the history of newspaper serialization. The author's intention behind writing this novel was to depict a true image of King Sejong the Great. The novel praises his achievements of both human and superhuman leadership over a period of 32 years,

in politics, economy, diplomacy, culture, and more. The novel covers a vast historical period, including the time before King Sejong's birth, which made some readers lose interest before reaching the parts about King Sejong himself. As a result, the newspaper series was concluded after nine years and the author, Pak Chong-hwa, published a 12-volume book titled 〈King Sejong the Great〉 in 1997. If you are interested in only reading about King Sejong, you can start with volume 11 of the book.

From the volume 11, the story of King Sejong unfolds in earnest from the story of creating Han'gŭl. 『King Sejong』 This was published as an English book by Lachwood Publishing Company in New York called 〈King Sejong〉, focusing on volumes 11 and 12. An Chŏng-hyo, one of the famous Korean novelists, translated this book into English. If you look at the table of contents, it is almost the same as the Korean book. An Chŏng-hyo is also famous for his novel 〈White Badge〉 which deals with the Vietnam War.

This novel is also translated by the author himself and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t is not easy to find this book now, but if you can, it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what is related to King Sejong. The next book is the novel 〈The Novel: Hunmin chŏngŭm〉 written by Yi Ch'an-u in 1997.

Unlike Pak Chong-hwa's novel, this book is titled 〈The Novel: Hunmin

chŏngŭm〉 King Sejong was born as the third son, and according to custom, the first son had to succeed to the throne, but the third son, King Sejong, succeeded to the throne. The novel also deals with the stories of great talents who helped King Sejong as an important part. It mainly deals with the creation process of “hunmin chŏngŭm,” so you can think of it as a novel made after King Sejong's biography.

Next, we have Yi Chŏng-myŏng’s 〈Deep Rooted Tree〉 from 2006. The advertiement copy in pictures 1 and 2 is noteworthy. They are a bit different. In the first edition, "The secret code of 'King Sejong' hidden in Han’gŭl!" is emphasized. However, as the novel became more popular and was made into a TV drama, the cover of the book was changed with copy of “the original novel of the masterpiece drama,” “Who killed the king’s scholars?” to highlight murder cases and criminal reasoning. So, with such advertisement, the novel can be imagined as a book that contains mysterious and detective elements. This novel was popular and became even more so as it was adapted into a drama.

I recommend this book as a representative historical novel related to King Sejong. Another novel to mention is Kim Chae-hŭi's novel, which also surrounds the secret of the creation of Han’gŭl. The crime and investigation of the murder case increases the tension of the novel. This novel also explores the mystery surrounding the creation of Han’gŭl. As there is no concrete explanation other than "Han’gŭl was suddenly created by King Sejong himself one day," many people are curious about the origins of the Korean alphabet, which remains an unresolved mystery. This novel presents the origin of Han’gŭl as “Karimt’o” script.

There are claims that the "Karimt'o" script existed before the Joseon Dynasty and was used in ancient times. The old script of Japanese, which is no longer readable by the Japanese, also has a similar character shape to Han'gŭl. This idea is used as a basis for a novel which explores the origins of hunmin chŏngŭm. So when I read this, you can question, "Huh? to that extent of ancient times? Can we trace the origin of hunmin chŏngŭm?" This novel can be thought of as one that stimulates the reader's imagination.

The next novel, 〈The Secret of hunmin chŏngŭm〉 by Kim Ta-ŭn, centers on King Munjong, the son of King Sejong and the next king. Unfortunately, he had to divorce his wife twice. One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is Crown Princess Pong, who also appears the subtitle of the novel. The novel explores the story of a powerful force that is trying to prevent the spread of hunmin chŏngŭm and the story of Crown Princess Pong, who was exiled from the palace. This Crown Princess Pong is a very interesting character, as she was gay. It may be difficult to say that she was a gay but she had a history of participating in homosexual gatherings, which was one of the reasons for her deposal.

This novel is particularly interesting in the way it explores the creation of Han'gŭl and the role of the Crown Princess Pong in its formation. Next, Han So-jin's work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King Sejong created the Korean alphabet on his own. It is such a compelling question. The novel says that it was not made by King Sejong alone. It suggests that his children, particularly his daughter Princess Chŏngŭi, played a crucial role in helping him complete the sound system of Han'gŭl. In that sense, this novel presents a women-centered historical narrative.

King Sejong had eight sons and two daughters, Princess Chŏngŭi was the second eldest daughter. She stood out for her intelligence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reation of Han'gŭl. Han So-jin's 〈Princess Chŏngŭi〉 highlights the role of the daughter and the woman in the creation of Han'gŭl.

Lastly, I'd like to introduce a historical novel from North Korea, which is 〈Hunmin chŏngŭm〉 by Pak Ch'un-myŏng, published in 2001. And later in 2006, it was also published in South Korea by purchasing the copyright from North Korea. The novel is based on the idea that Han'gŭl was created based on a native script that existed since ancient times. It is quite a similar setting with the earlier novel claiming the origin of Han'gŭl is the "Karimt'o" script. However, the novel imagines that the people created letters to suit their own sounds, emphasizing a people-centered approach. Because North Korea ostensibly emphasizes the people as the center of the state, such historical view is well manifested in this novel. This novel also claims that there was a

written script made by the people and subsequently converted into Han'gŭl later.

It is worth noting that Pak Ch'un-myŏng said "Our nation's excellent writing system, which can be highly boasted of to the world, was completed in the 15th century thanks to the talent and creative efforts of the wise people" In contrast to South Korea, North Korea does not regard King Sejong as a hero as much. This is likely because the king represents the ideology of the feudal ruling class.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Pak Ch'un-myŏng's 〈Hunmin chŏngŭm〉 was released in 2001, during a period in which North Korea unusually praised King Sejong as a person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civilization.

4차시 이정명의《뿌리깊은 나무》

Among the historical novels surrounding King Sejong's creation of Han'gŭl, Yi Chŏng-myŏng's 〈Deep Rooted Tree〉 is a notable representative work. It was published in 2006. The title 〈Deep Rooted Tree〉 is not arbitrary, but rather a reference to a verse from the epic poem that chronicles the history of the royal family to expedite the spread of Han'gŭl, after its creation. The first dynastic epic written in Han'gŭl is called "Yongbi ŏch'ŏn'ga (Song of the Dragons Flying to Heaven)", as you can see in this slide.

I have presented Chapters 1 and 2 of this epic. Chapter 1 refers to the six kings preceding King Sejong in the Chosŏn Dynasty, while chapter 2 symbolizes the deep roots of the dynasty, which allows it to weather any storms and produce abundant flowers and fruits. The epic is based on this idea that ordinary people can live comfortably and abundantly. Here, the author borrowed the concept of the "deep-rooted tree" from Chapter 2 and used it as the title of the novel. If you look at this slide, you can see that SBS produced a TV drama series with the same name, "Deep Rooted Tree".

There were 24 main episodes an additional special trilogy, so 27 episodes in total. The drama was highly popular, achieving a maximum viewer rating of 20%. With the success of the drama, the book sales also increased. This is a good example of the positive cycle of a novel-drama-novel adaptation. Furthermore, the drama itself was well-produced.Let's take a look at the trailer.

If you watch this trailer video, you can see that the people already knew and used Han'gŭl. The "deep-rooted tree" represents not only Han'gŭl itself, but also the power of its propagation among the people. The drama used a more dramatic and suspenseful approach than the original novel. Despite the male-centered ruling class' attempts to suppress the Han'gŭl created by King Sejong, the novel illustrates how it has firmly rooted and grown among the people. Here, I quoted the words of the drama scriptwriter. And you can see

this part, mentioning 〈The Da Vinci Code〉 marked in red, You can see that 〈The Da Vinci Code〉 influenced "Deep Rooted Tree" as much as Umberto Eco's 〈The Name of the Rose〉. So, what similarities can we observe?

On this slide, the cover of the book 〈Deep Rooted Tree〉 is placed side by side with the cover of the book 〈The Da Vinci Code〉. A passage from a newspaper that introduces 〈Deep Rooted Tree〉 stands out."It can be said to be 〈The Da Vinci Code〉 of Korea. It is not only thrilling and suspenseful, but also features intricate plot twists and serial murder investigations. The political code of the palace layout and the principle of the creation of Han'gŭl, which were previously not well known, are revealed in an amazing way," the book was introduced as such. The term "〈The Da Vinci Code〉 of Korea" is catchy.

Let's take a look at other introductions. "It is a historical mystery that deals with the creation of Han'gŭl." Then one can imagine "This 〈Deep Rooted Tree〉 has a mysterious setting, And it is similar to 〈The Da Vinci Code〉." 〈The Da Vinci Code〉 was very popular at the time of its publication. However, it is not as famous now, so it may be difficult to understand its level of popularity. If you haven't read it yet, I recommend 〈The Da Vinci Code〉 and am sure it would not waste your time.

The novel aims to publicize the true meaning of Jesus, who practiced the work of God through the humble existence of Mary Magdalene. This is why the legend of the Holy Grail appears. The presence of Mary Magdalene intrigues the readers with a story which deciphers her existence. Therefore, due to the novel's premise that she was the wife of Jesus,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opposed the distribution and sale of 〈The Da Vinci Code〉. This is how controversial it is. However, the author, Dan Brown, said "This is not all fiction. It's true" and deepened the controversy. If he had said it was fiction, it would have caused less controversy and the Catholic Church would not have opposed it as much. Regarding this, Umberto Echo, the author of 〈The Name of the Rose〉 called Dan Brown stupid.

Then what are the similarities between two works? In this slide, the similarities between 〈Deep Rooted Tree〉 and 〈The Da Vinci Code〉 can be seen. The plot of both novels begins with the death of a person and a

detective-like character appearing to uncover the reason behind the death. In 〈Deep Rooted Tree〉, the main character, Ch'ae-yun is such a character. He holds a low position in the palace but works alone to uncover the truth behind a murder case involving a criminal group. The plot also includes a court lady named So-i who possesses knowledge about the secret of the creation of Han'gŭl. this mysterious woman and obscure woman appears who is unable to speak, and adds to the mystery surrounding the creation of Han'gŭl and maintaining tension throughout the novel.

Here, the presence of a secret association organization is another common feature between 〈The Da Vinci Code〉 and 〈Deep Rooted Tree〉. In 〈The Da Vinci Code〉, Dan Brown writes about a group called Zion, a secret European organization in a secret society, which he claims is a real organization. In 1975, a parchment document was discovered, known as a secret document, which included the names of members of these Zion congregation from Isaac Newton to Hugo. Dan Brown claims that there was a list of names of this Zion congregation and the Zion group was actually a secret association and also held a secret religious ceremony.

He maintains that it is not fiction. The "Peony Clock" in 〈Deep Rooted Tree〉 can be thought of as a parallel to Dan Brown's secret association in 〈The Da Vinci Code〉 In 〈Deep Rooted Tree〉, there is also a criminal group trying to kill a member of the secret association, and this is how the book unfolds. In this slide, you can see the clues. Additionally, the clue to the novel is Han'gŭl. The novel is set up to provide clues with consonants and vowels, so that one has to combine these symbols to complete the sentence and open the way to the truth.

On the other hand, 〈The Da Vinci Code〉 provides clues in numbers. Whether it's a number or text, it falls on the main character to solve the mysterious code, which continually presents obstacles. Because when a book tries to be interesting, it can be seen as a rule that opposing forces, which constantly interfere to heighten dramatic tension, keep appearing. This is rule of the game. For example, when King Sejong announced the creation of Han'gŭl, even his closest officials were surprised and asked, "What's going

on?"

This created a condition where secrets could be formed. In historical novels, it is referred to as a blank spot or dark area, where imagination can be utilized. At this point, readers are able to engage with the story using their own imagination. In this context, 〈Deep-rooted Tree〉 has skillfully incorporated elements of crime, mystery, riddles, and intrigue. making the events surrounding the invention of Han'gŭl more dramatic and interesting. And it raises the question that the author wanted to address, "Are concepts that we consider as orthodox and heretical really so clearly defined and completely fixed?" What we call heresy may eventually become orthodox,

just as what we consider orthodox today. 〈Deep Rooted Tree〉 poses a philosophical and contemplative inquiry into the boundary At the time, the male aristocrats, the ruling class, viewed Han'gŭl and knowledge about Han'gŭl as "useless". That's why the knowledge written in Hangeul was also considered humble and of low status. So, they sought to eliminate it. However, King Sejong posited that it is natural to have a writing system that aligns with the sounds of the language from its own root. 〈Deep Rooted Tree〉 challenge such male aristocrats' belief on orthodox knowledge. This represents a spirit of challenge, and can be seen as a metaphor for Han'gŭl itself.

The author states that it is about the opening of the new era against established power of the old era, a battle between the old and the new, a battle between the old and the new, and questioning the texts and knowledge imposed by the bigger country, rather than blindly accepting them. And we should open a new era through texts that reveal the thoughts, feelings, and perspectives of our people.

It is worth examining Umberto Echo's "The Name of the Rose," as it presents a similar concept. In the picture on the screen, you can see the book, Aristotle's 〈Poetics〉. Historically, 〈Poetics〉 was believed to consist of two parts: one part being tragedy and the other being comedy. However, currently only tragedy remains. Umberto Echo utilized his imagination in writing 〈The Name of the Rose〉 to include the missing element of comedy. As previously stated, this is an imaginative exploration of "the dark area" or the

unknown or incomplete aspect. The novel is set in the 14th century and centers around homicides occurring in monasteries. The novel revolves around a book which contained a theory of comedy which was forbidden by the abbot, and it is revealed that the cause of death was that people were so curious about the theory that they kept trying to read the book only to find that it was coated with poison. The setting of the novel is unique in that it involves solving a mystery where those who read the book die.

The focus of 〈The Name of the Rose〉 and that of 〈Deep Rooted Tree〉, which centers on solving the secrets of Han'gŭl, and how the comedy part was forbidden in 〈The Name of the Rose〉 There are similarities in the form and structure of the novels also with 〈The Da Vinci Code〉. in its use of fictional imagination to uncover secrets that are not known in history Can you see the commonalities among these three novels? In this session, we examined the fictional imagination of the unknown or "dark" aspects in the historical novels.

5차시 세종대왕의 창의적 리더십

King Sejong is widely recognized as a renowned king who greatly advanced the cultural level of Korea, and as such, there is still a strong movement to emulate his leadership. In this survey, we found that 41.7% of respondents identified knowledge creation and management, such as the creation of Han'gŭl, as the first advantage they wish to learn from King Sejong. This may be attributed to his achievement in creating the first independent writing system, Han'gŭl. The second highest response, at 38.9%, was for his merit based personnel management strategy.

King Sejong was one of the early kings of the Chosŏn Dynasty, which succeeded the Koryŏ Dynasty. He devoted himself to stabilizing the country during a time of significant change, even shortening his sleep for other activities. This survey reflects a desire to continue King Sejong's spirit of knowledge creation and management in the 21st century. As a result, King Sejong's achievements are often compared to those of leaders from other regions and cultures, such as comparing King Sejong with Augustus and the Kangxi Emperor in China or with Abraham Lincoln in the United States. Such comparative leadership studies between King Sejong and others are sometimes the subject of conferences.

For example, Caesar Augustus, the first roman emperor, is known for establishing the peaceful period known as Pax Romana, expanding the Roman Empire's territory, protecting allies, and improving the tax system, If there is a basis for comparison, it is easy to imagine that King Sejong would have made similar achievements. Let's look at this in a bit more detail in the next slide. There is an editorial that suggests King Sejong can be compared to Steve Jobs.

Firstly, "I require competent bureaucrats and staff, as I do not need those who are incompetent." Secondly, "Creat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creative thinking is necessary, as the efficiency of work will not improve with

mere daily attendance." Thirdly, "We prioritize problem-solving by placing emphasis on practical knowledge, leading to many discussions. I do not require employees who remain silent and do not express their opinions." As such, King Sejong has been compared to several notable historical figures, including Steve Jobs and Augustus, due to his numerous achievements. due to his numerous achievements. Let's take a look into his achievements a bit more in detail.

First, it is noted in official records that King Sejong was highly intelligent and studious, and that he was able to break through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eldest son succeeding to the throne. And when Sejong finally fulfilled his role as king here and passed away, he was evaluated as the Emperor Yao and Emperor Shun of Han, an ideal king of East Asia, in "Haedong (Chosŏn)" After his death, there was an officer who recorded all the king's activities in detail. This individual was responsible for this task, and as such, the king had no control over it. Even kings were unable to express dissatisfaction and request for the removal of any recorded information.

However, if you look at what this official wrote, King Sejong is referred to as the ruler of Haedong, which was a name for Asia at the time. The Emperor Yao and Emperor Shun of "Haedong (Chosŏn)" refer to an ideal king who ruled the country with virtue. So, what shall we say? You can think of "Emperor Yao and Emperor Shun" as a kind of pronoun for ideal kings. So, right after his death, King Sejong was already considered an outstanding king. Then, why was King Sejong referred to as the "Emperor Yao and Emperor Shun" Haedong?

Firstly, he implemented a change of mindset and even granted maternity leave to slaves. Even now, women bear a significant burden during childbirth and childcare. Even during the Chosŏn Dynasty, when women were treated unfairly, King Sejong's virtue-based rule aimed to save, rather than harm, people. He personally demonstrated that effective governance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empathy and understanding for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class or property. In the strict status system of the Chosŏn Dynasty, slaves were viewed as property that could be bought and sold. Yet, King

Sejong granted slaves 100 days of maternity leave. I'm still truly amazed at what a paradigm shift this is. This is evidence of excellent leadership that demonstrated, beyond all social statu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care of their own body.

Secondly, King Sejong conducted a survey of 180,000 ordinary people in order to reform the tax system, which would be even difficult today. Not to cause undue hardship for farmers and other citizens, King Sejong tried to find the best way. However, he recognized that such sudden reform would inevitably cause some pain. Tax reform is a sensitive issue, both in the past and present. So, King Sejong conducted a survey of 180,000 ordinary people, asking people "How about this?" "Would it be good to do this?" "Should I reform the tax system?" This was a massive undertaking, especially considering that at the time, there were no online or internet resources. At the time, it was really a public opinion survey conducted on foot. So, when conducting this survey, the approval rate was slightly higher. However, there was also a disapproval rate of 42.9%.

If the approval was very overwhelmingly high, King Sejong would have implemented the policy right away, but since it was just a little higher than the opposition, King Sejong put it on hold for a while and chose to first implement the policy in areas where it was approved and gradually roll it out. This approach, which involves testing the policy in a pilot area before creating a law, which eventually took 14 years, is worthy of emulation. However, this approach may be more challenging to implement in modern times, given that the President changes every five years and political cycles change according to elections. You might think that this was possible because a king ruled for decades in the Chosŏn Dynasty. But King Sejong's agreement process at the time bears resemblance to modern democratic politics.

The third policy implemented by King Sejong was the alteration of societal attitudes towards talent recruitment, disregarding societal status. The principle of recruiting talented individuals without bias, as demonstrated by King Sejong, remains relevant and worthy of emulation today. Regardless of an individual's family and academic background, or the institution from which they graduated,

the traditional practice of valuing external relationships over individual abilities persisted. King Sejong, however, implemented a policy of hiring talented individuals without such biases. So, what can be said? Many individuals who were not traditionally considered as talents at the time, and faced opposition from the aristocrats, were appointed by King Sejong. Even the children of shamans or slaves, if they possessed talent and ability, were given official positions and allowed to showcase their abilities. The Chiphyŏnjŏn (Hall for Men of Wisdom), was a place where these great scholars, including young scholars, gathered to discuss and exchange ideas.

Through the left image on the screen, you may infer that this is an representation of Chiphyŏnjŏn during that time period. Chiphyŏnjŏn was a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 that nurtures and cultivates scholars and researchers essential for governance. During King Sejong's reign, those who were appointed as scholars in Chiphyŏnjŏn were not transferred to other government positions, but rather were allowed to continue working and advancing in their roles. This institution functioned as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King Sejong made efforts to create an optimal environment for scholarly study, by purchasing and printing books from China and other resources to support the scholars' studies. King Sejong even provided scholars with the opportunity to take a research yea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allowed them to focus on their studies and reading without the constraints of daily work.

As a result, the young scholars in Chiphyŏnjŏn developed their academic capabilities and played a significant role as government officials even after King Sejong's passing. In the 21st century, the spirit of Chiphyŏnjŏn is being continued through the Digital Chiphyŏnjŏn Project, which utilizes the enthusiasm for learning and the spirit of serving the people. These projects are still ongoing. Lastly, King Sejong's leadership is characterized by a focus on observation, communication, horizontal leadership, and open leadership.

6차시 미디어 속 '세종대왕'

King Sejong has been widely depicted in various forms of media, including historical novels. One such example is the 1978 film, 〈King Sejong the Great〉 which was not successful at the box office. In this image, King Sejong is depicted sitting solemnly. In 1964, the first Korean film about King Sejong was produced. The poster depicted is from the 1978 film 〈King Sejong the Great〉, which aimed to highlight the reformative nature of his reign. Despite a significant production cost of 250 million won, the film was not financially successful at the box office.

Due to its educational nature rather than being entertaining, people may have thought "Although it is educational, we are already well aware of King Sejong..." As such, the portrayal of King Sejong as a serious figure in the film may have resulted in a lack of popularity. In 2008, a total of 86 episodes of the epic TV drama 〈The Great King Sejong〉 were produced. Despite the ambitious nature of the project, the viewing rates of the drama were lower than expected. The underwhelming performance of the drama is believed to have been a result of a lack of imagination and fiction in its portrayal of the historical figure, King Sejong. The task of accurately depicting such a respected figure without incurring significant opposition from the viewers was not an easy one. In order to avoid any negative reactions, the character of King Sejong was depicted in a positive and admirable light. As a result, the drama ultimately did not achieve the level of success that its predecessor ha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re of this drama was the portrayal of King Sejong's compassion for his people, who he believed to be the equivalent of heaven, earth, and the universe.

The next film under consideration is 〈The Divine Weapon〉, released in 2008. This film depicts the creation of a long-range rocket shell by King Sejong. In this film, fiction is employed in a deliberate manner. The movie explores the idea that great achievements are not recorded in history and

seeks to explain why through the use of fiction and imagination. The story is centered around the efforts of many individuals, including King Sejong, who worked towards the development of this rocket shell.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ilm, I would like to direct your attention to the trailer of the film.

In this trailer, you can see the emphasis on the role of "nameless" individuals in the creation of the rocket. Additio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movie is just one of several that deal with the subject of the creation of Han'gŭl, such as 〈I Am the King〉 that continue to be produced.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works, there are many other productions that center around the mystery surrounding the creation of Han'gŭl by King Sejong. Another popular subject is the death of King Sejong, with some works depicting the power struggles that ensued after his death.

Traditionally,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in Chosŏn was passed on to the eldest son of the king. However, King Sejong was an exceptional individual who ultimately succeeded in ascending the throne despite not being the first-born son. His first son, King Munjong, was passed over for the throne, but King Sejong had other sons in addition to Munjong. As a result, when King Munjong ascended the throne, his second and third sons were not eligible for the throne. The principle of succession was passed on to the first-born son. However, unfortunately, King Munjong died at the age of 37, as you can see on this slide. Then, King Tanjong, the eldest son of King Munjong, should have succeeded to the throne, but the issue was that he was too young, only 12 years old at the time. King Tanjong who was only 12 years old when he ascended the throne. And as you can see here, there was King Sejong's second son, who later became King Sejo.

This second son was a driving force behind King Tanjong's removal from power and he became the king. During this time, many officials who had assisted King Sejong in creating Han'gŭl, including the scholars of Chiphyŏnjŏn, were killed by King Sejo as they supported King Tanjong. This was a tragic event. These scholars of Chiphyŏnjŏn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Six Martyred Ministers, as they persisted on their loyalty to the previous kings,

including King Tangjong, King Sejong, and King Munjong. That's why they are called "martyred ministers." The bloodshed power struggles that ensued after King Sejong's death, leading to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from Sejong-Munjong-Tanjong-Sejo is a popular subject for historical novels. King Sejong ruled the country well, but after his death, a "Game of Thrones" style power struggle ensued.

Sejo ousted his young nephew, Tanjong, from the throne and ultimately executed him, by ordering him to drink the poison. This action of seizing the throne by Sejo can be viewed in two ways. The first perspective is that it was a symbol of Sejo's desire for power, as he became king by taking advantage of his younger nephew's weak position. The alternative view is that it was deemed too unstable for a young king to rule, and therefore, it was necessary for Sejo to assume control and ultimately, it was a decision made for the benefit of the country. A famous historical novelist, Yi Kwang-su, wrote a novel from the perspective of King Tanjong, criticizing Sejo's usurpation. It was written in 1929.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work called 〈Tae Suyang〉 by Kim Tong-in, which presents a defense of Sejo, written as a counter to Yi Kwang-su's 〈Tanjong aesa〉. Here, "Suyang" is Sejo's prince name. These two works present opposite perspectives, with Kim Tong-in defending Sejo against Yi Kwang-su's defense of Tanjong. Kim Dong-in interpreted the events from Sejo's perspective in his work 〈Tae Suyang〉. Two photos are presented on the screen, representing the opposing perspectives.

One is 〈Tanjong aesa〉 and the other is 〈Suyang taegun〉. At the time of its release, the 〈Tanjong aesa〉 was highly popular among readers. However, Kim Tong-in's work, which presented an opposing view, did not enjoy the same level of popularity. As previously mentioned, two historical novels have been created from opposing perspectives. Likewise, there are films made from such contrasting perspectives.

Both deal with the topic of Sejo's seizure of the throne. The left one is 〈Tanjong aesa〉 and the right one is 〈The Face Reader〉. In Korea, the practice of physiognomy holds significant importance.It is considered a form of

astrology that allows one to determine an individual's potential to become a king or a traitor by analyzing their facial features. The practice of physiognomy has gained significance in Korea, as it is believed that a person's overall life are reflected in their facial features. This belief makes logical sense, as it is natural for one's experiences, knowledge, and life to be reflected in their appearance.

Recently, there was a smart-phone application available in Korea where users can upload a selfie and be categorized as a king, merchant, aristocrats, or low class, based on their facial features. I have personally tried this feature multiple times, and each time the result varied, once I was categorized as a merchant, later as a low class, leading me to conclude that the accuracy of the classification is questionable. I guess this app is still available. In the movie 〈The Face Reader〉, Sejo is told by a physiognomist that he is destined to be king, and he is forced to take the throne. The physiognomist was so frightened that he could not tell him that "you won't be king" in the movie. In 〈The Face Reader〉, Sejo is depicted as a king who was created by himself, rather than one who was born into the role. I would also recommend the 2013 film 〈The Face Reader〉, which poses questions about the fact that a king created by force is still a king. You'll understand how Sejo's seized the throne from his young nephew Tanjong in the film. So far, we've talked about the power struggles that took place after King Sejong's death.

讲义

1차시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초상화의 변천

2007年韩国曾进行过关于最值得骄傲的人物的问卷调查. 是由一家杂志社举办的. 其中, 世宗大王以28.2%的得票领先于24.6%的李舜臣, 位居第一. 世宗大王和李舜臣作为最值得骄傲的人物, 伯仲之间, 但世宗大王能够超越李舜臣获得第一位的背景是留下了创制韩文等灿烂的文化功绩. 那么, 来考察一下世宗大王是谁, 为什么不像宣祖那样称呼其为普通的君主或国王,

世宗大王为什么获得所谓大王, 即非常出色的君王的尊称. 光化门广场上矗立着两座铜像. 前面的是朝鲜时代出色的武士, 相当于现在的海军司令官的李舜臣, 后面的是世宗大王的铜像. 众所周知, 世宗大王说是创造韩语文字-韩文的人物. 画面中学生和老师正在交流与此相关的故事. 小朋友问老师："世宗大王左手上拿的是什么书呢？" 老师回答说是《训民正音解例本》. 并解释道《训民正音解例本》是记录创制训民正音的理由和使用方法的书, 那么, 韩文与训民正音是不同的吗？下面来了解一下.

各位如果看到世宗大王的铜像, 请好好看一下他的左手和手中的书. 世宗大王左手拿着的书是《训民正音解例本》. 解释说明训民正音的原理和声音等, 相当于说明书. 可以说是解释'训民正音如何构成'的说明书. 而训民正音这个词有些陌生. 即使知道韩文. 但二者并无二致. 因为世宗大王首次创制声音文字的时候, 将其命名为训民正音. 将'以正确的声音训导民众'的汉字意思, 称之为训民正音.

而将训民正音更名为韩文是韩国成为日本殖民地后的1927年. 之前一年的1926年, 如图所示, 举行了最早的韩文日纪念仪式. 写的不是'韩文', 而是'가갸日庆典'. 这样看来, 韩文的名字最初为训民正音, 然后被称为'가갸日庆典', 之后在1927年更名为韩文. 现在大家都称之为韩文, 并不称其为训民正音. 大家可以将训民正音理解为韩文的旧称. 记录训民正音的创制理由和原理的书籍被称为《训民正音解例本》或《训民正音》. 这张照片阐明了世宗大王为何创制训民正音. 虽然知道原来有这本书, 但其间此书一直下落不明, 所以以为这本书没有了. 但十分神奇的是, 在1940年被发现了, 由于其对发展韩文研究起到了决定性的作用, 所以十分重要. 不仅是韩文学者, 而且对世界语言学者而言也是珍贵的资料, 1997年被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记录文化遗产名录. 因为通过此书确定了创制韩文的准确时间, 所以将10月9日

确定为韩文日. 希望各位可以记住此书的发现意义重大. 目前, 联合国教科文组织给为扫除文盲做出贡献的人授予King Sejong Prize, 这是为了纪念世宗大王希望所有人都不被文字疏离的意愿而设立的奖项.

世宗大王是韩国人最喜爱的历史人物. 所以各位如果来到韩国看到纸币的话, 会发现韩国纸币上理所当然地出现了世宗大王. 没人反对将世宗大王用作纸币图案. 但问题是不能确认世宗大王真实的样子. 这是1973年绘制在万元韩币上的世宗大王的形象. 是上了年纪有点严肃的, 创造了文字的君王的样子. 如果仔细看的话, 会发现旁边画着韩国的国花木槿花. 而现在流通的万元韩币上绘制的世宗大王形象与此有所不同. 与1973年万元韩币上绘制的形象相比, 脸型和长相都有所不同. 所以人们开玩笑说世宗大王反而变得更年轻了. 旁边绘制的木槿花也消失了. 世宗大王纪念馆中保存着的世宗大王的影帧, 即肖像画. 但同样与万元韩纸币上的世宗大王的形象有所差异.

各位可能会想"世宗大王的形象为何会如此不同呢?"虽然世宗大王统治在位期间曾绘制过肖像画, 但其在壬辰倭乱这一巨大战乱中被烧毁了. 所以无法得知世宗大王的真实的样子. 虽然参考各种记录和专家的建议绘制了世宗大王的肖像画, 但因为没有基本肖像画, 所以脸部和表情各不相同. 而在关于以哪一种为标准的问题上, 选用的正是保存于世宗大王纪念馆的影帧. 这是位于骊州韩文市场的世宗大王铜像, 显露着十分亲切的笑容. 随着岁月流逝, 世宗大王也变成了如此亲切的形象, 这是我所举的一个例子.

世宗大王出生于1397年. 朝鲜时代虽然有严格的嫡长继承原则, 但世宗大王由于学艺超群, 所以即使是第三子, 却继承了王位. 他在1443年创制了训民正音, 而除此之外, 他还命令年轻学者们新发明了很多的仪器和机械. 可以理解为现代利用尖端科学技术, 制造了很多对生活有用的东西. 代表性的例子有浑天仪、测雨器、自击漏等, 下面边看图边说明一下.

现在万元纸币的背面可以看到画着这样的图画. 大家可能会问道:"这是什么呢?" 这正是浑天仪. 是模仿天空的样子, 再现星星移动的天文观测仪器. 据说, 这是用来测量时间并进行天文学课的. 与现在自动告知天空动向的精巧装置有一定差距, 即便如此在当时也是十分卓越的天文学工具. 各位可以理解为, 世宗大王也对天文学感兴趣, 是试图准确掌握天空运动的科学思想的所有者.

这是利用浑天仪而制成的浑天时钟. 是利用世宗大王所发明的浑天仪而制成的浑天时钟. 利用钟摆测定时间. 可以同时观测时间和天空的动向. 是十分合理有用的装置. 之前跟大家讲过, 这是朝鲜时代制作的天文时钟中唯一流传至今的文物. 被指定为大韩民国的宝物, 即国宝第230号的理由也是因为它是唯一流传至今的文物.

下面正是自击漏, 更漏. 据说中国元顺帝时期, 曾有过自动显现时间的更漏. 但是其精巧

性可能不及蒋英实. 蒋英实是奉世宗大王之名制造自击漏的人. 不及蒋英实的精密. 所以自击漏是万世流传之物. 官方记录中解释了自击漏十分精巧准确, 被称为每隔2小时敲击钟鼓的现代数字时钟的原型. 这种自击漏被评为非常出色的技术. 虽然想要通过视频向各位展现自击漏的精巧, 但因为版权问题, 所以将展现自击漏工作原理的视频作为参考文献附加在后面. 希望有兴趣的同学一定看一下这个视频.

下面是最后展现世宗大王功绩的测雨器. 测雨器是测量雨量的仪器. 世宗时期首次制作并在全国普及. 使雨水积聚, 测量雨水的深度, 以此测定降雨量. 所以下方有测雨台, 这是为了将测雨器放置在一定高度上而作为支撑的石头. 各位可以看到照片中的石头, 为什么要放块石头呢？因为如果地面飞溅的雨水进入测雨器, 就无法准确测定雨量. 为了防止雨水溅入而设置了测雨台. 由此可见, 雨量的测定何其严格. 作为国家的标准测定工具, 在全国普及了测雨器. 足见世宗大王对民生的深切关心.

2차시　한글과 여성

1443年12月30日，这是什么日子呢？ 正是在这张照片中所看到的突然公布世宗大王创制韩文的消息. 标有下划线三行文字告知了这一消息. 世宗大王亲自创制了韩文，在'训民正音'这短短的一句话中包含了改变韩国文字历史的重大内容.

再仔细来看一下. 这是用韩文解释告知创制韩文的汉文布告的内容. 世宗大王亲自创制了谚文，韩文被称为多个名字. 其中也被称为谚文. 即创制了28个韩文文字. 虽说文字模仿了以前的文字，但是区分初声、中性、终声，并将其组合成文字的想法，完全是世宗大王的独创性思考，因此在当时是相当革新的想法. 关于如何产生这种想法的谜团，后代之人，现在的现代人也仍然着发挥想象力，试图揭开"韩文到底如何创制"的祕密. 如果不乘坐时光机回到过去直接询问世宗大王的话，那么围绕这个谜团的无数故事就会一直继续刺激我们的想象力.

这是将意味着教导百姓正确声音的解说书《训民正音》翻译成韩文的《训民正音谚解本》. 所谓谚解本，是指将汉文的训民正音解说书翻译成韩文，就是使任何人都能读懂的意思. 其内容如下.

"韩语与中国语不同，因为文字使用汉字，因此说话和文字的出入非常严重. 两班学习汉字可以实现，但不识字的百姓，即使有话要说，因为无法用文字来表达，所以吃亏的事情很多. 最具代表性的就是因为对法律无知，百姓在不知情的情况下犯罪，因此受到更重的处罚."

这就是世宗大王创造训民正音的想法. 由此可见，创制韩文的意图正是源于如此热爱百姓的爱民精神.

现在韩文由24个字构成基本文字. 辅音14字，元音10字. 加起来是24个字. 以这些基本文字为基础的紧音，出现了'ㄱ'转换成'ㄲ'的应用等. 对韩文感兴趣的人应该都看过这一内容. 因为本课时不是关于文字的学习，各位知道现在24字是基本文字就可以了. 而世宗大王创制的使百姓受益，法律上也不吃亏的训民正音本来是28个字. 由17个辅音和11个元音组成. 也就是说还有4个字. 这4个字现在已经不再使用. 就是幻灯片所展示的4个字. 因为现在不用这4个字，所以我也读出来. 在任何时代、任何文化中，文字都会不断变化、生成和消失. 所以，这种ㆍ、ㆁ，半齿音，ㅱ，现在连现代韩国人也不再使用. 而且也不知如何使用. 无论是在英语圈还是使用其他任何文字都是如此，韩文也这样改变的. 但是部分学者表示，如果到现在一直使用这四个文字的话，那么在翻译其他国家语言时，可以更加丰富、准确、多样地发音，但无法挽回已经消失的四个文字，所以这种话可以当作好事者之言而一笑置之.

在首次告知韩文创制的几个月后，1444年2月20日，从集贤殿的学士排名来看，排名第二的崔万理，上疏反对韩文，为什么突然说到上疏呢？所谓上疏是朝鲜时代官员们认为国王展开的政策不合理，对其进行批评时主要使用的手段．各位可以理解为，上疏君主的同时对君主的政策提出反对或要求纠正就可以了．

崔万理为何反对韩文呢？ 世宗大王亲自创制并公布了韩文，崔万理为何反对世宗大王的丰功伟绩？崔万理批评韩文粗鄙无益．用现在的话来说，汉字是高级，即最高等级的文字，而韩文是低级，低等文字．最近年轻一代经常使用满级，低级，这种话．以“没有一点好处，反复思考也没有创制韩文的理由”“百姓干活就已经够忙的了，还让学什么文字啊！”“统治阶层的两班使用诗文就可以了”等理由反对颁布韩文．在大臣们如此反对颁布韩文的情况下，世宗大王对于反对做出了这样的应对．

“按照发声书写．需要符合这片土地之音的文字体系．如果向愚笨的民众普及可以按照发声书写的文字，至少能产生守护儒教伦理和权利的力量．为了使所有人都能接触到文字，需要与声音相通的简单文字”，以此堵住了反对官员的嘴． 世宗大王认为，如果能够用眼睛阅读的知识和信息增多，那么就可以防止因为无知而受冤被害，因此发明了了众多百姓、所有民众都可以使用的声音相通的文字,这就是韩文．

世宗大王试图唤醒所有人的目的没有在短时间内实现．正如大家所见，甚至有官员在世宗大王面前反对韩文的创制．尽管如此，韩文还是通过韩文创制这一重大事件逐渐扩散．统治阶层的男性虽然一直使用汉文，但女性和普通民众们却适应并发展了世宗大王创制的韩文．

这张幻灯片的图片上写着‘韩文反切表’．韩文反切表是学习韩文的初级教材．在书堂或一般家庭学习韩文时广泛使用．据悉，这一教材一直使用到20世纪．最上面用红色标记的字是‘가’，按照가-나-다，ㄱ-ㄴ-ㄷ的顺序，是以这种方式叙述的．而‘가’的上面画着包含‘가’的狗(개)．在‘ㄱ’，‘가’上画着附有元音的狗，在‘나’的上面画着包含‘나’的蝴蝶(나비)，在‘다’的上面画着包含‘다’的鸡(닭)，是以这种方式绘制的．可以将其理解为，这是为了在学习韩文的同时不枯燥，长久地记住，画下了符合文字的动物的非常初级的教材，

还有后面的这些文字，这张幻灯片中看到的这封信是母亲安某写给儿子的信． 是韩国的文化遗产．这是母亲担心在死去的丈夫的墓地哀悼父亲为之守墓的儿子而亲手写的信．这正是韩文．这是16世纪，十分早期的韩文信，从这一点来看，是非常珍贵的资料．写信时间很准确，发信人和收信人也很明确，是十分有助于韩文信件研究的资料，至少是展现了16世纪女性用韩文写信，进行文字生活的宝贵记录．

从幻灯片上看到的书信字体非常漂亮．这是1874年朝鲜最优秀的韩文名笔宫女李氏所写的

字体．所谓的宫女，是指宫里的侍女．在宫中，有一些宫女用这种漂亮的字体代替王妃和公主等书写．因为是宫中使用的字体，所以被称为宫体或宫书体．这些宫女经过严格的挑选，接受严格的教育，这样发展而来的宫体，成为展现温柔优雅、彬彬有礼的字体．以出色的视觉美为傲．这种曲线化，给人一种柔和的感觉．大家说："宫书体写得行云流水一般． 而且这都是由宫中的女性们发展起来的."如果是现在的话，可以认为这是一种可以申请专利的字体．

1775年，李德懋忧心忡忡．因为女人沉迷于韩文小说，所以懒得做家务． "内容都是嫉妒淫乱的，使女人受到不好的影响，如何是好？"十分担心．这是当时男性统治阶层对韩文和韩文小说的看法．相反，我们可以反过来推断，女性是韩文小说的主要消费者群体．

那么韩文小说是如何流通的呢？有个地方叫做贳册家．按照现在的说法，贳册家就是租书店．当时印刷技术不像现在这么发达，不可能个人收藏书．所以抄写原稿的专业抄手，直接抄写后售卖．因此，在幻灯片中可以看到抄写者在旁边还写下了"请不要因为字写得不好而责难"的请求．而且读者们也会在借来的书上留下读后感，正如照片所示，也有"书租金太贵了"这样的抱怨．还有人说"竟然这样断更，太坏了"，可以说这种留言文化，这种留言文化就是写在这种借来的书上的．实际上，太过喜欢借览这种韩文小说，据说，女性中也有为了借书而把家里的财产全部花掉的人．但很难判断这是真的还是有所夸张．

画作是尹德熙的《读书的女人》． 可以称之为读书三昧境， 即深深地沉迷于读书的样子．是1700年代的作品．一般认为，近代以前的朝鲜时代的女性需要负责家务，所以时间不充裕，但空闲之时女性也喜欢读书．从这幅画中可以看出，虽然女性们需要忙于家务，照顾家族，做很多男性不做的事情，但是女性们也会抽空读书，甚至写书．但对朝鲜时代女性的创作有很多批判，所以即使写了韩文小说，女性也不会署上自己的名字．

我想说的是，世宗大王希望所有百姓都不再遭受委屈之事，能够学到很多知识和信息，其中最大受益者就是女性，女性创造了宫体、创作了这些书、韩文小说，希望大家在这堂课上好好思考一下．

3차시　세종대왕 관련 역사소설

那么有关世宗大王的历史小说有哪些呢？最开始我想介绍的小说就是《世宗大王》.

这是从1969年3月1日到1977年2月11日为止连载了2456次的小说.　这是报纸连载史上连载时间最长的小说.　作者阐明了想刻画世宗大王的真面目而写这部小说的理由,　该小说盛赞世宗大王作为人类,　以超人的领导能力在32年间积累了巨大的功绩.　描绘了世宗大王在政治、经济、外交、文化、所有方面都取得了毫不逊色的功绩,

该小说因为过长得叙述世宗大王出生前的历史情况，读者们等累了，甚至有没读到实际描写世宗大王的部分的传闻．足见其篇幅之长．所以结束了9年的报纸连载．朴钟和立即以10卷单行本出版了这部小说．1997年出版了12卷本．出版的书名也是《世宗大王》．因为世宗大王的部分是从第11卷开始,　所以如果想读的同学只想看世宗大王的部分的话,　那么从第11卷开始看就可以了．因此，从韩文的开始，以这种方式，从关于韩文的故事开始正式展开了世宗大王的故事.

此书以11卷、12卷为中心,　以《King　Sejong》为题,　由纽约拉奇伍德出版社出版英文书.这是韩国著名小说家之一安正孝翻译成英文并出版的书.　从目录来看,　与韩语单行本几乎相同.　而且安正孝是以描写越南战争的小说《白色战争》而闻名的韩国小说家.　这本小说也是自己亲自翻译成英语并在美国进行了出版．而且这本书现在很难买到，如果能买到的话，应该有助于正确理解世宗大王的相关部分.

下一本书是2002年李灿厚写的《小说训民正音》.　此书与朴钟和的小说不同,　以训民正音为标题．世宗大王是第三个儿子，按照惯例，应该由长子继承王位，但作为三子世宗继承了王位.　这部小说中帮助世宗大王的优秀人才的故事也是十分重要的部分.　而且主要讲述了训民正音的创制过程，所以可以认为这部小说是根据世宗大王的一生而创作的小说.

下面是李政明的《树大根深》,　2006年的作品.　请关注一下照片1、2中的宣传语.　这里存在着差异.　初版中强调了“隐藏在韩文中的'大王世宗'的祕密代码!”　但是随着这部小说被拍摄成电视剧，大受欢迎，封面也发生了变化．封面上将“名品电视剧的原著小说！”置于前面，之后写着“是谁杀死了王的学士？”　是更加突出杀人事件和犯罪推理的广告语．那么大家仅凭这一广告语就能充分推测出“这本书应该是包含着某种神祕推理的小说.”　所以这部小说很受欢迎,改编成电视剧后更受欢迎．这是我推荐的有关世宗大王的代表性历史小说.

金载姬的这部小说也是围绕韩文创制祕密的故事. 有关杀人事件的犯罪和推理增加了小说的紧张感. 这部小说的内容也是追踪韩文创制之谜. 因为除了"某天世宗大王突然亲自创制了韩文"之外, 没有任何说明, 所以很多人很好奇韩文到底是怎样创制的, 现在这个谜团还没有解开. 所以这部小说将韩文的源头看作用加临土文字. 有人主张加临土文字是远远早于朝鲜时代, 从古代开始就存在的文字. 现在日本人无法读的日本神代文字也采用了与韩文相似的文字形状. 是以这种想象力, 将训民正音源于加临土文字的部分想法小说化的作品. 所以读一下这部作品, 就会产生"嗯? 追溯到那么久远的古代吗? 可以找到训民正音的源头吗?"的想法, 是一部刺激想象力的小说.

接下来是金多恩的《训民正音的祕密》. 作为世宗大王的儿子登上下一任王位的文宗不幸两次废除了妻子. 用现在的话来说就是离婚了. 而其中一位就是这部小说的副标题世子嫔奉氏. 阻止训民正音普及的势力十分庞大. 与被赶出宫阙的世子嫔奉氏的故事并行展开. 世子嫔奉氏是非常有趣的人物. 因为她是同性恋. 虽然不能说世子妃本身就是同性恋, 但也有参加同性恋聚会的经历, 这也是世子妃被逐出宫的原因之一. 这部小说是根据训民正音的创制, 即韩文的创制, 加上世子嫔奉氏是如何被赶下台的行迹改编成了小说, 所以这部小说在这方面非常引人关注.

接下来是韩素珍的作品. 大家不是很好奇"真的是世宗大王一个人创造了韩文吗?"但这部小说中韩文并不是由世宗大王一人创制的. 世宗大王的子女们帮了忙. 特别是世宗大王的女儿贞懿公主帮助父亲完成了韩文的声音体系, 可以认为这是以女性为中心的历史小说. 世宗大王子女众多, 有8男2女. 二女儿就是贞懿公主. 听说贞懿公主很聪明. 贞懿公主在父亲遇到瓶颈的部分, 不知道如何解决之时, 提供了帮助, 为创造韩文做出了贡献, 突出女儿的作用, 女性的作用的作品正是韩素珍的《贞懿公主》.

最后我想介绍一下朝鲜的历史小说. 这是朴春明的《训民正音》. 2001年在朝鲜出版. 韩国也在2006年引进朝鲜的版权进行了出版. 此小说认为训民正音是以古代存在土著语为基础创制的, 这与刚才所说的以加临土文字为基础的设定有点相似. 但是这部小说发挥着民众根据自己的声音创制了文字的想象力. 因为朝鲜以民众为中心, 所以彻底贯彻了这种以民众为中心的历史观. 即这部小说也认为已经有了民众创制的文字, 世宗大王将其韩文化. 暂时引用一下朴春明的话. "我国能够向世界炫耀的优秀文字, 是在智慧的人民大众的才能和创造性的努力下, 在15世纪完成的." 朝鲜并没有像韩国那样将世宗大王视为英雄. 因为朝鲜认为认为王代表了封建统治阶层的理念. 但是朝鲜在2001年将世宗大王作为科学文明发展做出贡献的人物, 破例给予了高度评价, 当时出版了朴春明的《训民正音》, 这一点也值得铭记.

4차시　이정명의《뿌리깊은 나무》

围绕世宗大王创制韩文的小说中，将以李政明的《树大根深》为代表作进行讲述.

是2006年出版的作品.《树大根深》并不是作家随手起的题目. 因为《树大根深》是从讲述世宗大王创制训民正音， 即韩文后， 为了普及韩文的使用而首次创作讲述王朝来历的叙事诗中摘取了一句作为题目.

这里幻灯片中展示了，最初用韩文创作的王朝叙事诗的题目是《龙飞御天歌》. 幻灯片中展示了《龙飞御天歌》的第一章和第二章. 第1章中的'海东六龙'，指的是朝鲜时代世宗之前的六位国王. 第2章的讲的是"根深之木，风亦不扤，有灼其华，有蕡其实". 在这样的基础上，普通百姓也能过上舒适富足的生活. 作者借用了第二章中'根深之木'作为了题目.

从幻灯片可知，SBS拍摄了同名电视剧《树大根深》. 正片24集. 特辑3集，共27集的这部电视剧非常受欢迎，最高收视率达到了20%. 伴随电视剧的成功， 书也跟着大卖. 这正是很好地体现'小说-电视剧-小说'良性循环关系的事例. 而且电视剧本身也是制作精良的电视剧. 暂时来看一下预告片.

看完预告片的话， 就会发现讲的是百姓们也知道韩文的内容. 树大根深说的既是韩文本身，也是韩文在民众之间根深蒂固的传播力. 加入了比小说更戏剧化的感动元素. 戏剧性地展现了无论男性统治阶层如何镇压世宗大王创造的韩文,韩文都在百姓之间扎根成长的事实.

在这里我节录了电视剧作家的话. 用红色标注了《达芬奇密码》的这一部分，这一部分不亚于翁贝托·艾柯的《玫瑰之名》，对《树大根深》产生了重要影响. 那么哪一部分如此相似呢？

幻灯片中并列展现了《树大根深》的封皮和《达芬奇密码》的封面. 在介绍《树大根深》的报纸的一句话映入眼帘. "这可以说是韩国的《达芬奇密码》. 追踪连环杀人的刺激和绝妙的技巧，以及我们不太熟悉的宫殿布局的政治代码和韩文创制的原理， 以惊人的方式展现了出来." 这样介绍了这本书. 韩国的《达芬奇密码》这句话非常入耳. 再看一下其他介绍. "讲述韩文创制的历史谜团." 这样一来，大家就会推测出"《树大根深》有某种神秘的设定. 而且这和《达芬奇密码》很相似."

《达芬奇密码》的出版在当时非常受欢迎. 但是现在不像当时那么有名，所以很难感受到其人气. 如果还没读过的话，推荐大家可以读一下《达芬奇密码》，也不算浪费时间. 该小说的目的在于通过玛丽·玛格达莱妮这一卑微的存在， 使实践伟大神事的耶稣的真正意义广为人

知，所以出现了圣杯传说．出现了所谓玛丽·玛格达莱妮的存在，并以追踪其存在的内容刺激了大众的好奇心．因此，有耶稣的妻子这一设定，罗马天主教会曾反对传播和销售《达芬奇密码》．这是一部备受争议的作品．但作家丹•布朗表示，“这一切都不是虚构的．是事实.”引起了更大的争议．如果干脆说是虚构，那么天主教会就不会如此反对了．因此，《玫瑰之名》的作者翁贝托·艾柯也称丹·布朗为‘傻瓜’.

那么何处如此相似呢？ 我在幻灯片上为了可以互相比较，进行了这种对照．请参考一下．首先作品是从人的死去开始的． 那么， 应该出现寻找死者为何死掉的侦探型人物． 这个侦探型人物正是主人公采允． 因此， 虽然他在宫中的地位非常低， 但他以坚定的使命感， 面对一直试图隐瞒杀人事件的犯罪集团， 为了查明真相而孤军奋战． 在此过程中， 采允遇到了知道创制韩文祕密的名为唉梨的宫女,即一名女性， 但是非常神祕， 甚至被设定为不能说话， 这样一来， 与创制韩文相关的谜团逐渐发酵，直到小说的结尾都保持着紧张感．而在这里所谓的‘神祕组织’也是《达芬奇密码》和《树大根深》的共同点.

在《达芬奇密码》中， 作者丹·布朗描写了欧洲神祕组织郇山隐修会， 并且主张这是实际上是存在的组织．讲述了1975年发现了被认为是祕密文件的羊皮纸，上面记录了从艾萨克·牛顿到雨果的郇山隐修会的会员的名字， 丹·布朗说道,“郇山隐修会这一团体实际上是一个神祕组织． 所以举行了祕密的宗教仪式等.” 所以丹·布朗主张其不是虚构的， 可以将丹·布朗所写的《达芬奇密码》中的神祕组织当作《树大根深》中的‘芍药时钟’．这样一来，其中也有神祕组织的活动，也有想要杀死神祕组织会员的犯罪集团，可以认为小说是以这种方式展开的.

现在所看到的幻灯片中提示了线索．《树大根深》的线索就是韩文． 其设定是通过辅音和元音提供线索，组合符号完成句子，才能打开接近真相之道．与此相反，《达芬奇密码》是用数字来提供线索的． 总之， 无论是数字还是文字， 类似解谜的解开密码这种事情是担任侦探型角色的主人公的责任．而且会一直遭到妨碍．因为如果书想要有趣的话，需要提高戏剧性紧张感，一直出现进行妨碍的反对势力也可以看作是一种规则.

就这样，某天世宗大王宣布创制了韩文，世宗大王最亲近的大臣们也毫不知情，“这是怎么回事?”大吃一惊． 围绕这一切的祕密是形成小说的条件． 在历史小说中将此称为‘空白点’、‘盲区’． 因为这是想象力、人类想象力可以介入的地方， 所以大家可以认为《树大根深》很好地融合了犯罪、推理、解谜、谜团等，使创制韩文的事件更加戏剧化、更加有趣．在这里，作者想提出的是“我们有所谓的正统观念，所谓的异端观念，这些真的是一成不变的吗?”的问题．正如曾经被称为正统的东西现在不是正统一样， 被称为异端的东西可能在某个时刻成为正统， 对于这种界限,《树大根深》提出了更加哲学性、思索性的质疑.

当时支配阶层的男性士大夫们认为韩文和韩文知识是‘没用的知识’， 因此以韩文书写的知

识被视为非常卑微和低贱的. 而且甚至想要消除韩文本身. 但是世宗大王认为，本来就是从不同根源产生的声音，创制符合其声音的文字是理所当然的，《树大根深》开启了挑战男性士大夫们所谓正统知识的道路. 正是这种挑战精神，怎么说呢？ 结算，这种产物可以说就是韩文. 作者甚至赋予了“这宣告着与巨大时代对抗的新时代的诞生”的意义. 因此作者称其为旧与新的战争. 不是无条件服从强大国家的文字和知识，而是应该通过我们民众、我们百姓书写的思考、感情，通过能够体现这些的文字，来开启新时代. 这体现了作者的主题意识.

那么来看一下展现与此相似思考艾柯的《玫瑰之名》. 照片中是亚里士多德的《诗学》. 本来《诗学》由第一部分和第二部分组成，但现在只剩下第一部分悲剧了. 据说第二部分是喜剧论. 但实际上剩下的只有悲剧，因此翁贝托·艾柯通过存在喜剧的小说想象力写了《玫瑰之名》. 就像我刚才说的一样，盲区，即发挥想象力创造了没有剩下的部分. 14世纪，修道院发生了杀人事件. 设定的死亡原因是人们非常好奇被修道院院长指定为禁书的喜剧论，想要一直读下去，结果那里埋藏了毒. 所以读完那本书的人都会死掉，是解开这一谜团的小说.

在这里，用韩文小说解开某种韩文的祕密与翁贝托·艾柯的《玫瑰之名》中喜剧如何成为禁书，还有《达芬奇密码》，这些小说有三点相似之处，形式上的相似，在历史上不为人知的祕密，试图揭开这个盲区的作家的想象力，这三点是这些作品的共同点，大家能感受到吗？本课时对这种盲区的小说想象力进行了探讨.

5차시 세종대왕의 창의적 리더십

世宗大王作为如此著名的国王，并且被评价为提高韩国文化水平的国王，因此现在仍然有很多人认为应该学习世宗大王的领导能力. 希望向世宗大王学习的优点中排名第一的是创造韩文等知识创造经营. 进行了问卷调查，结果发现知识创造经营占41.7%，这可能是因为世宗大王首次创造了独立的文字体系-韩文的功绩. 以能力为主的人才经营战略以38.9%位居第二.

世宗大王是高丽时代结束、朝鲜时代建国初期的国王. 当时是应该重新整备一切的时候. 他废寝忘食，为国家的稳定倾注了全部力量. 这是反映了将这种精神延续到21世纪的知识创造经营的意图的问卷调查. 因此，很多研究将世宗大王的这些功绩与其他地区和文化的领导人进行了比较. 例如，奥古斯都与世宗的比较，中国的康熙帝与世宗的比较，林肯与世宗大王的比较，领导能力的比较成为学术会议的主题. 奥古斯都作为罗马首任皇帝，创造了所谓Pax Romana的太平盛世. 而且他作为开拓罗马帝国领土、保护同盟国、改善税收制度的著名人物而广为人知. 如果说有什么比较依据的话，可以充分想象世宗大王也会留下那样的功绩，为了更具体地进行考察来看一下下面的幻灯片.

有人假设，世宗大王可以与史蒂夫·乔布斯相比. 第一，“不需要无能的官僚和职员. 需要有能力.” 第二，“需要创造能够进行进行创意性思考的环境. 无条件地每天上班不会提高工作效率”，第三，“重视实用知识，集中解决问题. 因此要经常讨论，不需要什么话都不说闭口不言的职员.” 因此，从史蒂夫·乔布斯到奥古斯都，如果世宗大王有这么多的比较对象，那么世宗大王肯定有与之相关的功绩. 来看一下世宗大王的功绩.

首先，世宗大王聪明且治学严谨. 甚至可以打破长子原则，即嫡长子继承王位的原则. 留下了世宗大王治学严谨的官方记录. 世宗在尽到了君主的作用而去世的时候，被评价为海东尧舜，即亚洲理想的国王. 世宗大王去世后，有一一记录国王事迹的史官. 因此此人专门负责这件事，所以即便是国王也不能随变命令他. 不能因为自己不满意就说“你把这段记录删掉!” 但是从史官留下的记录来看，世宗大王被称为 海东尧舜，尧舜指的是以德治国的理想国王，可以看作一种代名词. 被评价为海东尧舜. 也就是说世宗大王在去世后，已经被评为卓越的国王. 那么世宗大王到底为什么被称为海东尧舜呢？

第一，思想的转变，同样给予奴婢产假. 现在女性的生育、育儿负担也很重. 在朝鲜时代，在如此贬低女性的朝鲜时代，以德治为基础的统治应该向着救人的方向，而不是杀人的方向发

展. 因此，世宗大王亲自展现了，不管有无阶级和财产，只有拥有对人类的共鸣和理解，才能进行优秀的统治. 奴婢，所谓奴婢，在朝鲜时代严格的身份制度中奴婢是像物品一样可以进行买卖的存在. 而世宗大王下命给予奴婢100天的产假，即使是现在，我也十分惊讶于这部分想法的转换. 也就是说，抛开身份的高低贵贱，人们都有足够的权利照顾自己的身体，这是亲身证明自己优秀领导力的证据.

第二个想法的转变是为了进行税制改革， 对18万名普通人进行了舆论调查. 这在现在也是很难做到的. 世宗大王在修改税收时， 试图寻找不给农民或民众带来痛苦的最佳方式. 他认为， 如果直接实施，肯定会带来痛苦，特别是税金问题，无论是现在还是过去都是非常敏感的问题. 因此，在进行税制改革时，世宗大王对18万人进行了舆论调查. “你觉得这个怎么样?” “这样实施好吗?” “要不要进行税制改革呢?”就这样一一寻访了18万人，虽然现在网络发达，可以马上完成，但当时真的是一家一户逐一寻访的舆论调查. 做了舆论调查发现，赞成率更高一些. 但也有42.9%的人反对. 如果赞成的人占绝大多数，世宗大王会立即实施该政策，但因为反对率有点高，所以世宗大王说，这样的话，就暂且保留，以赞成税制改革的地区为对象优先实施. 在此基础上，继续实施，首先选择试点地区，优先实施，之后经过长达14年的时间， 制定税制改革法. 这种精神真的非常值得学习， 但现在很难这样做. 因为总统，现在相当于君主的总统每5年换届一次， 因为换届更选举， 所以可以认为， 这是因为以前朝鲜时代的国王统治几十年，才有可能的事，但无论如何，世宗大王当时的合议程序与现代民主主义政治也有相似之处.

第三点思想转换是不分身份高低，任用人才的政策. 世宗大王的功绩中，现在仍需要继承的是人才录用原则. 家世如何，学历如何，毕业于哪个学校，相较于个人的能力，更重视外在关系的情况很多. 世宗大王没有这种偏见， 均衡地录用人才. 所以当时也录用过很多没有被当作过人才， 士大夫们全部反对的人物. 即使似乎巫堂之子或奴婢的孩子， 如果有才能和力量，也会赐予官职，使他们发挥自己的能力. 这些如此优秀的学者、年轻学者们聚在一起进行讨论的场所就是集贤殿.

各位看到这张照片的左侧的话，就会发出“啊，这就是当时集贤殿的样子啊！” 这种感叹. 大家可以将集贤殿理解为培养、孕育统治所需的学者和研究人员的国家研究所. 世宗大王时期，如果被任命为集贤殿学士，就不会转为其他官职， 而是一直在那里工作. 使其一直在集贤殿中升职. 相当于国家所属的研究员. 所以世宗大王为了使学者们能够专心研究， 从中国买入了千金难求的书籍，并进行刊印，为学者们创造研究所需的环境和设施，做出了很大的努力. 并且给予他们一定时间，相当于现在的研究年，可以不用上班，在集贤殿中读书半年或一年. 所以集贤殿的年轻学者们培养了这种学术能力， 在世宗大王去世后也作为国家官员发挥了巨大作用. 而且现在也有数字化集贤殿项目，发扬21世纪集贤殿的精神,学习热情，以及这种爱国

爱民精神的项目现在也正在进行.

所以最后可以将世宗大王的领导能力分为眼光领导力、沟通领导力、水平领导力、开放领导力这四种.

6차시　미디어 속 '세종대왕'

不亚于小说中出现的世宗大王，多样的媒体也再现了世宗大王．第一张幻灯片是1978年票房失败的电影《世宗大王》．以十分严肃的形象坐着．1964年，拍摄了关于世宗大王的第一部韩国电影．海报是1978年拍摄的电影《世宗大王》．刻画了世宗大王颇具改革性的一面．虽然当时投入了高达2亿5千万的制作费，但最终没能成功．因为教育性太强，没有意思，所以人们评价道："教育性很好，而且我们对世宗大王了解了很多，但是……."这样看来，虽然在这部电影以严肃的面貌再现了世宗大王，但在吸引人们人气方面却失败了．

之后在2008年拍摄了共86集的大型电视剧《大王世宗》．是野心勃勃企划拍摄的电视剧，但收视率比想象中要低．我认为，可能是世宗大王卓越的功绩阻碍了虚构和想象的介入，所以失败了．因为太过卓越，所以很难摆脱这种状态，给予其他虚构和想象的空间．如果把世宗大王稍微刻画得有些不好，因为世宗大王是非常受人尊敬的人物，所以就会担心观众的严重反驳，因此只能刻画为过于正面的人物．所以这部电视剧也像前面的电影一样，没能获得成功．但这里的核心可以说是描写世宗大王热爱百姓的'爱民精神'，即便只是一名百姓，对他而言也如天地宇宙一般．

之后是2008年的电影《神机箭》．这部《神机箭》是以世宗大王首次制造的远程火箭炮弹为素材拍摄的电影．这里积极介入了虚构的成分．这一伟大功绩并没有被载入史册．关于为何没有记录，是因为这是添加了虚构和想象而编造的故事．讲述了很多民众不亚于世宗大王为制造火箭炮弹而付出努力的故事．那么暂时看一下这部电影的预告片．

如果看完这一预告片的话，大家可以理解"没有名字的民众在制造火箭炮的过程中起到了决定性的作用."　而且除了这部电影之外，以《我是王》为代表的，以创制韩文为题材的电影也在持续拍摄中．除此之外，众多围绕世宗大王创制韩文之祕的作品也正在拍摄中．

另一个颇受欢迎的素材是世宗大王死后立即展开王权的游戏．朝鲜的王位继承是嫡长优先．但世宗大王因为能力太过出众，最终战胜了长子登上了王位，世宗大王的嫡长子正是文宗．而除了文宗之外，世宗还有其他儿子．所以文宗一旦登上王位，自然第二个儿子、第三个儿子就无法登上王位．因为是嫡长继承原则．但令人遗憾的是，如图片所示，文宗在37岁时死亡．那么文宗的长子端宗应该继承王位，但问题是端宗的年纪太小了．当时12岁．12岁登上王位的端宗最终被世宗的第二子，从旁边看右边的话，右边就是世宗的第二子世祖．被世祖篡夺了王位．即世宗的第二子自己成为了国王．还有当时辅佐世宗大王创制韩文的众多大臣们，即之前

讲过的是集贤殿的学士们，因站在端宗一边，被世祖夺去了生命。 这是非常令人惋惜的事情. 这些集贤殿的学士们被称为死六臣，因为是以死对之前的国王-端宗，或者是世宗、文宗尽忠的臣子，所以被称为死六臣. 那么，世宗-文宗-端宗-世祖这充满鲜血的王权游戏，成为了历史小说的素材. 实际上非常适合作为历史小说的素材.

因此，虽然世宗大王出色地治理国家，但在他死后，展开了王权游戏. 世祖将年幼的侄子端宗赶下王位还不够，还赐予其毒药，被称为死药，类似现在的毒药. 毒死了端宗. 对于世祖的篡夺王位有两种看法. 第一种是"瞄准年幼侄子的弱势地位，自己成为了国王，这是权力欲望的象征". 第二种是"年幼的国王治理国家太过不安，总是被大臣们左右"，因为这样的想法，最终"这是意图拯救不安的国家的救国决断"，存在这两种看法.

十分著名的历史小说作家站在端宗的立场上，创作了批判世祖篡夺王位的小说. 是1929年的作品. 与李光洙的《端宗哀史》针锋相对的作品是金东仁的作品《大首阳》. 这里所说的'首阳'，就是世祖的名字. 所以写了《大首阳》这部作品. 在这种相互对立、完全相反的视角下，诞生了这两部作品. 即金东仁与拥护端宗的李光洙针锋相对，拥护世祖. 站在世祖的立场上解释了这一事件.

现在给大家展示的是，展现两种相反视角的单行本的照片. 一部是《端宗哀史》，另一部是《首阳大君》.《端宗哀史》面世之时，深受读者们的喜爱. 展现与之相反的视角的金东仁的作品，实际上并没有获得这么高的人气.

我讲过这是由小说改编的两部作品，而电影也是从这样两个角度拍摄的作品. 这是一部以世祖篡夺王位事件为题材的电影. 这两部作品就是左边的《端宗哀史》和《观相》. '观象'在韩国非常重要. 可以看作一种通过观察脸型，判断会成为王还是会成为背叛者的一种占卜术. 韩国认为观相非常重要. 因为坚信人类的经历会直接体现在脸上. 从另一角度来说这也有一定道理. 人的生活经历、知识和生活面貌也会体现在脸上，从某种角度来看，这也是理所当然的事情.

有一段时间，大家将自拍上传到韩国的APP上，然后就会被为王、商人、两班、贱民等，告诉各位自己属于什么身份. 我也试过很多次，一次成为了王，一次成为了商人，一次成为了平民，因为每次自拍上传的时候都有所不同，所以大家会认为"果然这个不准确啊". 这个应用程序很受欢迎. 现在也可以下载这个应用. 在这部电影中，世祖强行从观相家那里得到了将成为王的预言. 因为太害怕了，所以不能说"你不能成为王". 因此，《观相》最终通过世祖自己登上王位的故事，展现了"以力量创造的王也是王"这一观点.

在此向大家推荐一下2013年作品《观相》，大家看过之后就会发现"啊，世祖是这样废除了年幼的侄子端宗，自己成为了国王的大,"这是之后关于王权游戏的故事.